

제1회 ARKO 청년 소논문 공모전 장려상 수상작



# 커뮤니티비즈니스 개념의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예술촌 연구

안 지 언

# 목 차

## 제 1 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2

## 제 2 장 본론

- 1. 이론적 배경: 커뮤니티 비즈니스 ..... 4
- 2. 예술촌의 개념 및 범주 ..... 9
- 3. 사례분석 ..... 13
  - 가. 예술가 및 예술단체 주도형의 ‘다자와코예술촌(田沢湖芸術村),  
민들레연극마을’ 사례 현황 ..... 13
  - 나. 사례연구 ..... 15
    - 1) 사례조사 설계 ..... 15
    - 2) 다자와코예술촌, 민들레연극마을 ‘대표자’ 심층 인터뷰 ..... 17
    - 3) 예술가 및 단체주도형으로의 다자와코예술촌, 민들레연극마을  
‘주체별’설문 ..... 21
  - 다. 사례연구의 시사점 ..... 31
    - 1) 인터뷰에 따른 사례 비교분석 ..... 31
    - 2) 설문지에 따른 사례 분석 ..... 32
    - 3) 커뮤니티비즈니스적 관점 ..... 33

## 제 3 장 결론 ..... 35

## 참 고 문 헌 ..... 36

## 표 목 차

<표1-1> 연구의 흐름 .....	3
<표2-1> 사회적경제, 비영리조직,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개념 .....	5
<표2-2> 국가 별 예술촌 정의 .....	10
<표2-3> 공간에 따른 예술촌 범주화 표: 저자구성 .....	13
<표2-4> 심층인터뷰 실시 개요 .....	19
<표2-5> 예술촌 대표자 심층인터뷰 내용 요약 .....	21
<표2-6> 예술가 및 예술가 주도형 예술촌: 다자와코예술촌, 민들레연극마을 사례 연구에 쓰 인 기본 인구 통계학적 변수 .....	23
<표2-7> 민들레연극마을 소속(주체) 빈도분석 .....	24
<표2-8> 다자와코예술촌 소속(주체) 빈도분석 .....	24
<표2-9> 운영주체에 대한 예술가 및 예술 단체 관련자의 의견 .....	24
<표2-10> 운영주체에 대한 행정기관 관련자의 의견 .....	25
<표2-11> 운영주체에 대한 타 지역주민의 의견 .....	25
<표2-12> 운영주체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	25
<표2-13> 사례 통합의 현 예술범주대한 의견 .....	26
<표2-14> 사례 통합의 보완되어야 할 예술범주대한 의견 .....	26
<표2-15> 사례 통합의 신설되어야 할 예술촌 공간에 대한 의견 .....	27
<표2-16> 사례 통합의 개선되어야 할 예술촌 공간에 대한 의견 .....	27
<표2-17> 가설검정결과표 .....	29

## 그림 목차

[그림2-1]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차이 .....	7
[그림2-2] 시간의 흐름에 따른 커뮤니티의 성격변화: 저자구성 .....	11
[그림2-3] 새로운 공간의 개념: 저자구성 .....	11
[그림2-4] 사례조사의 전 과정 .....	16
[그림2-5] 사례 대상: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예술촌 선정 .....	17
[그림2-6] 질문지 설계도 .....	22
[그림2-7] 가설1 평균도표 그래프 .....	30
[그림2-8] 가설2 평균도표 그래프 .....	30
[그림2-9] 가설7 평균도표 그래프 .....	30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산업화 이전에 사람들은 본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삶의 방식은 자본화, 개인화, 그리고 도시화로 인해 지역사회의 형태는 변화하게 되었다. 이 변화는 상부상조라는 기존의 인간관계가 일시적 인간관계에 의해 대체되는 경향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관계 변화 과정에서 개개인들이 겪는 소외의 경험은 오늘날 공동체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간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는 그 통합성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지역사회는 점차 자생적·자연적 단위가 아닌 행정적 단위로 성립되었고, 지역의 의미도 행정적 구분 결과인 특별시, 광역시, 도, 시, 읍 형태로 변화되어 ‘도시공동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새로운 행정적 관계는 개개인의 삶의 토대가 경쟁과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사무적이고 비인간적인 공간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날 고도로 산업화된 도시사회로의 전환과 교통·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개개인들은 장소의 구분이 그다지 중요치 않은 생활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근래에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는 경향을 포착 할 수 있다. 공동체의 대한 기본적 개념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 즉 사회관계적 측면과 공간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며, 사실 이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이다.”<sup>1)</sup> 매키버<sup>2)</sup>(MacIver)는 사회유형에 관한 이론 전개에서 커뮤니티(community)와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을 제창하고, 커뮤니티의 기초는 지역성(locality)과 공동체감정에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행정적 단위로의 지역이 아닌 ‘커뮤니티’로의 지역인 것이다.

반면에, 힐러리는 공동체를 “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하나의 혹은 그 이상의 부가적인 공동의 유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의 형태”<sup>3)</sup>로 정의하였다. 이렇듯, 공동체(커뮤니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자연스럽게 공동체 구성도 현실화 되고 있다. 커뮤니티는 ‘목적과 방향 그리고 사람들의 열정’이 모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놀이’적 요소가 가미되면 공동체의 의미와 효과는 더 강해진다. 이 때문에 놀이를 근간으로 하는 예술커뮤니티가 오늘날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인류문화적 자산으로서 예술 계승을 이해하고 예술가에 의한 창작과정과 감상자의 의한 향수과정이 예술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정의할 때,<sup>4)</sup> 실제로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다양한 활동들은 지역구성원들의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동체감정 더불어 예술창작 및 향수를 ‘지역문화공간’으로 관찰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예술가에 의한 창작과정과 감상자의 의한 향수과정을 예술의 중요한 역할로 보고 예술의 창작과 향수의 측면에서 예술과 ‘지역문화공간’의 연계성을 고찰하려한다.

이와 같은 개념 정립과 더불어 필자는 지역문화공간의 실천적 측면을 예술공동체 혹은 예술촌을 통해 이를 수 있다고 보는 바이다. 실제로 근래에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된 지역에

1) 김연희, 도시공동체를 위한 수직적 마을구성에 관한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설계전공, 석사학위논문, 2011

2) Robert Morrison MacIver, “커뮤니티론” 1917

3) G. Hillery,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vol.20, pp. 779-780

4) 이케가미 준 외 10인 (저) 황현탁 (역) 『문화경제학』, 서울:나남출판, 1999

산재한 폐교나 폐기된 각종 산업 시설물 등의 활용은 우리나라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폐공간의 예술 공간화 사업은 지역을 살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공간 확보를 통하여 예술의 실현을 효과적으로 가능케하였다.

폐공간 외에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예술공간은 기존의 극장, 미술관, 도서관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예술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해소해 줄 것이라 기대된다. 예술촌 이용자들의 예술 향유 기회를 단순히 확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술 활동에 대한 ‘체험’과 ‘이해’를 통해 예술에 대한 인식과 행동 변화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예술촌이 일종의 매개공간으로 기능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스스로의 삶과 집단 혹은 지역을 연결하도록 만들고 경험을 공유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무대로 한 예술활동 증대 계기로도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예술’의 가치를 ‘어떤 주체가’ ‘어떤 기반’과 ‘어느 방법’ 가지고 ‘지역사회와 연계’되어 창작하고 향유하는 것인지에 근거하여 해명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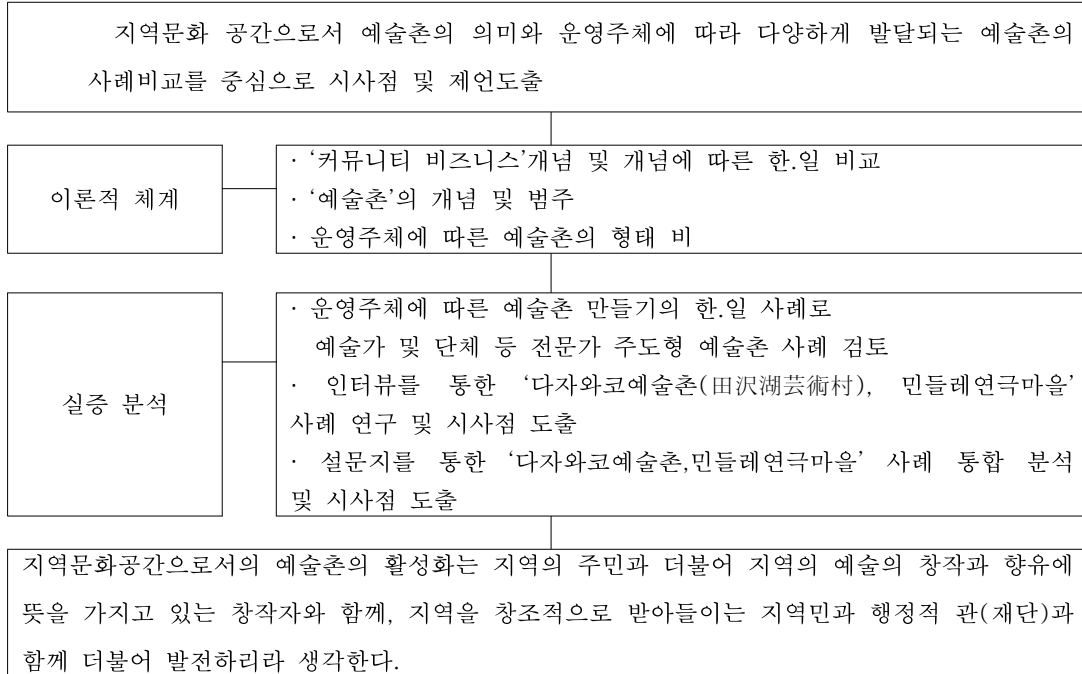
##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예술촌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예술촌이 보여주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자들이 지역문화공간의 ‘활용’사례, 지역문화공간 ‘만들기 과정’사례, 지역문화공간의 ‘운영’사례 등을 구분하여 서술한 것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술촌 만들기의 사례를 ‘운영주체’에 주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술촌 형성이 주체에 따라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인지를 밝히고 이와 연관된 시사점 및 제언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운영주체에 따른 예술촌 만들기의 한.일 사례 및 특성을 비교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학위논문, 학술지, 도서 등의 문헌연구와 더불어 다자와예술촌(田沢湖芸術村)과 민들레연극마을 사례를 정성적 연구방법(인터뷰: 예술촌 대표자 자)과 정량적 연구방법(설문지: 예술촌 이용자)을 통해 분석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예술가주도형의 예술촌 사례연구 안에서 ‘직위 및 소속’별로 견해를 이끌어내고 정리하여 사례연구를 통한 쟁점을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견해를 서술하려한다.

본 연구는 정성적 연구와 정량적 연구를 병행하여 진행된다. 이는 지역문화공간에 대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체를 몇 가지 방식을 활용하여 복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들을 분석해볼 때 주요한 연구 주제는 지역문화공간의 ‘만들기 과정’이나 ‘공간 활용 사례’에 관한 것들이다. 이는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설문지 등을 활용한 통계의 이용이 아니라 구체적 사례와 지역문화공간을 이루고 있는 관련 대표자 및 주민에 대한 인터뷰가 중점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운영주체’에 따른 예술촌 사례연구에 있어서는 예술촌 대표자와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예술촌 대표자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여 타 소속(주체) 의견을 듣는 것이 부족해지면 발생할 수 있는 신빙성 결여 문제를 설문지 기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지역주민, 타 지역주민, 예술가 및 예술단체, 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봄으로 해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정량적 연구방법인 설문지를 통해 취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시행했다. 따라서 심층인터뷰가 다자와코예술촌(일본), 민들레연극마을(한국)

사례를 비교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면, 설문을 통해 다자와코예술촌(일본), 민들레연극마을(한국) 예술가 및 예술단체 주도의 예술촌 두 사례를 소속별(주체 별)로 지역주민, 타 지역주민, 예술가 및 예술단체, 행정기관소속의 의견을 도출함으로 인터뷰에서의 신빙성 결합을 보충하였다. 다자와코예술촌 62부, 민들레 연극마을 62부로 총 124부로 빈도분석과 함께 가설검증을 spss v12로 통계 화 하였다.



<표 1-1>연구의 흐름

## II. 본론

### 1. 이론적배경: 커뮤니티 비즈니스

#### 가. 커뮤니티 비즈니스 정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용어가 세상에 등장한건 오래되지 않았다. 반면 이와 유사개념으로 사용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내 학술지 연구의 성과가 점차 국내 저명학술지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고 있다.<sup>5)</sup> 그러나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2006년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모형」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2009년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지역경제활성화」와 호소노부타카(일본커뮤니티비즈니스 연구소 소장)의 2010년 경기복지재단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국제심포지엄 때 발간된 「지역사회를 바꾸다 새로운 비즈니스 스타일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적기업과의 차이를 밝히며 개념의 모호화를 방지하였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관한 논문은 시작에 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무엇일까?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지역을 기점으로 주민이 친밀한 유대관계 속에서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한 지역에서 잠자고 있던 노동력, 원자재, 노하우, 기술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지역문제의 해결에 착수하고, 바로 비즈니스로 성립시키며,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4년 호소우치 노부타카에 의해 일본 내 처음 소개된 이 개념은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자신의 지역을 건강하게 만드는 주민주체의 지역사업”이라고 그는 소개 하였다. 지역의 곤란한 점을 ‘걱정스러운 혼잣말’에서 시작해 그 문제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일이라고 정의하였다.

더불어 최근 국내보고서에 의해 정의된 바를 살펴보면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커뮤니티와 비즈니스의 합성어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가기위한 활동(삼성경제 연구소 2009, 10)”이란 정의와 “지역의(of) 지역에 의한(by) 지역을 위한(for) 여러 유형의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활동(김창현, 2008)”이란 표현이 대표적이다. 즉,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 지역의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지속가능한 조직을 의미한다. 또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속가능한 도시 및 마을만들기의 효과적 수단으로 활용되며 지역활성화를 목표로 한다.<sup>6)</sup>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역이 지닌 문제에 대해,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비즈니스 형태로 해결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유사한 개념으로는 사회적경제 (social economy)<sup>7)</sup>,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s),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s) 등이 있다. 이 세 개의 용어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연구자는 pearce(2003)이다. 그는 경제체계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부분, 계획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부분, 사회적 목적을

5) ( 「노동정책연구」 김경휘 외, 2006), ( 「사회보장연구」 심상학, 2007), ( 「사회복지정책」 김명희, 2008), 노동부의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및 시행

6) 김창규, 『지역사회를 비즈니스하다』, 서울:아르케, 2010, pp.32~33

7) 공공 서비스의 주체는 크게 민간부분, 공공부분, 제3섹터 등 세 개의 부분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제3섹터는 국가의 역사적, 법률적, 제도적 배경과 사회,정치적 변화 및 공공성과 수익성을 강조하는 차이에 따라 국가,지역마다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사회적 경제(또는 자원봉사부분), 미국에서는 비영리조직(또는 독립부분)으로 불리고 있다.

추구하는 자조, 상호부조 부분 등으로 구분했다.

더욱이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3가지 개념과 비교가 될 수 적이다. 3가지 개념은 사회적경제, 비영리조직, 사회적기업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경제의 요소는 이윤보다 조합원 혹은 사회적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할 것, 관리의 독립성, 민주적인 의사결정, 이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는 사람 및 노동을 우선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은 비영리조직의 요소는 공식조직, 민간일 것, 이익배분 불가, 민주적 운영, 자발적 참여 등을 만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동시에 공공자원을 받는 다는 점과 운영의 자율성, 독립성, 자발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와 비영리 조직과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 개념은 ‘비즈니스를 통해 지역커뮤니티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실현’<sup>8)</sup>에 근거, 수익을 추구하는 영리조직이나 비영리조직 모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와 비영리조직, 사회적기업은 운영방식과 시장경쟁 및 구성원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우선이나 주가 아닌 것이 가장 큰 차이이다.

아래의 임혁백 外 4인의 2007년도 사회적경제, 비영리조직,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관한 차이분석을 토대로 한 김진범 外 3인의 2009년도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방안연구』 2007년도 보고서 안에 개제된 사회적경제, 비영리조직,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비즈니스에 관한 차이 분석표가 위의 개념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구분	사회적경제	비영리조직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운영방식	구성원의 민주적통제	기업식 운영가능, 전문가에 의한 소수의 통제	기업식 운영가능, 영리적사업 기술활용	지역주민의 역할중요 주체 혹은 멤버로 참여
시장경쟁	시장경쟁에서 상당한 위험감수	시장외부에서 공익활동	시장경쟁에서 상당한 위험감수	지역시장기반, 시장경쟁참여
재원	개인의 출자원칙 (정부지원수용)	개인과 기업의 기부 (정부지원수용)	정부보조금,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	주민출자, 정부지원, 민간기금 등
구성원	유급 노동자 채용	자원봉사자 위주, 유급노동자	유급노동자채용	유급노동(지역고용우선)
이윤배분	공익적 목적사용, 또는 구성원에게 이윤배분	공익적 목적사용	공익적 목적사용, 또는 구성원에게 이윤배분	지역커뮤니티에 기여

<표2-1> 사회적경제, 비영리조직,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개념

표2-1 에서와 같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근간은 지역커뮤니티, 지역사회이다.용어의 개념화와 함께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특징 4가지를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에

8) 김진범 外 3인,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방안연구』, 서울:국토연구원, 2009,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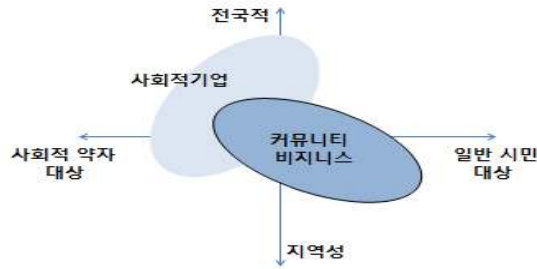
밀착한 비즈니스'이다. 둘째로, '이익 추구를 제일로 하지 않는 적정규모, 적정이익의 비즈니스'이다. 즉, 일하는 사람이 있는 곳을 만든다는 것으로 굳이 기계화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로, '영리를 제일로 하는 비즈니스와 자원활동의 중간영역'이다. 자원활동은 무료라는 점과 회사는 돈을 벌어들이는 곳이라는 극단적으로 치우친 관점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금의 저출산 고령사회에 이 중간적인 일의 방식을 지역사회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 참여의 장을 만든다는 의미로 쉼여도 좋을 것이다. 넷째로, '글로벌 한 시각에서 로컬에서 행동하는 개방적 비즈니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법인격이 아닌 NPO방식이나 4명이상이 모인 기업조합으로 마을만들기(마치즈쿠리)기반의 주식회사 경우도 있다.

비영리 주식회사사란 정관상 이익을 내도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회사이다. 정관상 포함시켜 두었다가 그 정관에 기초해, 이익을 올려 지역에 환원 또는 조직으로서 고용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사실 국내에선 위와 같은 개념으로 사회적기업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두 개념이 국내에선 상당히 혼용된 바 부적절하게 혼용되어지는 일들이 본 논문을 통해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

현재 정부의 획일적인 '사회적기업' 정관과 사업운영 및 기업인증제도와 육성정책이 개념의 차이를 인지하고 수정되기를 바란다. 2010년 발표된 김윤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 사회적기업과의 구분을 목적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1권, 제1호에 의하면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기업을 다음의 세 가지 요소에 근거해 구분 지을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1) 한정된 지역과 광범위한 영역: 서비스 또는 생산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한정된 지역에 존재하는가, 아니면 제한없이 전국과 같이 광범위한 지역에 거주하는가에 의한 기준이다. 2) 일반주민과 취약계층대상: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 서비스제공과 나아가 공동체의 활성화에 그 목표를 두는가, 취약계층에 한정해 그들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에 목표를 두는가이다. 3) 범위의경제와 규모의경제: 사업의 "적정규모, 적정이익"에 기반을 둔 범위의 경제를 추구하느냐 아니면 그 규모와 이익에 있어 제한을 두지 않는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는 바이다.

위 세 가지의 분석틀에 근거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기업의 차이는 커뮤니티비즈니스의 경우 생산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와 소비자가 '한정된 지역'에 존재하는 그 지역의 '일반주민'으로 서로 얼굴이 보이는 관계에서 경제활동을 벌이지만 소량 다품종 사회서비스 생산을 통한 '적정규모, 적정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범위의경제'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국적 차원'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이들의 자립을 돕는 "기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재 투자해 더 많은 실직자와 빈곤층 일자리 창출에 힘을 기울임"<sup>9)</sup>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9) 김윤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 사회적기업과의 구분을 목적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1권, 제1호, 2010년, p283



[그림2-1]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비즈니스의 차이

출처: 김운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 사회적기업과의 구분을 목적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1권, 제1호, 2010년, p283재인용

‘사회적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한정과 동시에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개념이 단절적인 것이 아닌 연속선상에 놓인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지역을 벗어나 보다 넓은 영역 또는 전국을 대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할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이 전단계로 커뮤니티 비즈니스개념을 많은 기업 및 단체가 인용하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용어를 시발한 호소우치 노부타카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효과를 첫째로 ‘인간성 회복’ 개인의 일하는 방식이나 삶의 보람 만들기 도움, 둘째로 ‘사회 문제의 해결’ 커뮤니티 사람들에 의한 비즈니스로 영속성을 부여하는 의미로의 문제 해결 형 비즈니스라고 정의한다. 셋째로, ‘경제기반 확립’으로 지역자원을 적극 사용하여 고용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 넷째로, ‘생활. 문화의 계승 및 창조’로 선인의 지혜를 살려 그것을 적극 활용하고 함께 일하는 장을 만드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그는 커뮤니티 넓이를 걸어 다닐 수 있고 얼굴이 보이는 관계의 지역으로 한정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중요한 포인트로 잡고, 처음부터 회사를 만들 필요는 없음을 강조하였다. 문제는 지역문제에 귀를 기울이는 2~3명의 사람이 발전하여 후에 기업조합을 만들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역사회에까지 자연스럽게 환원하는 형태를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꼽았다.

이처럼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지역사회에 기반이 중요한 이론으로, 커뮤니티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경제활성화가 아닌 인간적(공동체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활기찬 커뮤니티를 지향함을 알 수 있다. 커뮤니티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론적으로 ‘예술촌’이라는 공간을 통해 예술가의 창작과 시민의 향유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커뮤니티(공동체성)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한다.

비영리와 지역사회 환원이 자연스럽게 비즈니스로 이어짐을 태생으로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예술의 사회 환원 성격은 자연스럽게 매칭 될 것이며, 무엇보다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예술촌’ 사례를 살피는 본 논문에 적합한 이론으로 사례연구를 통한 시사점 및 제언에 기반이 될 것이다.

#### 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따른 한.일 비교

일본의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흐름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동양적 메커니즘이 자리하고 있다. 전통적 일본사회의 형성과정에 일본인들은 몸에 밴 인상은 깎듯하고 예의바르며 남

을 배려하듯이 보인다. 그들은 불편한 마음이 다소 있을 지라도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 이러한 습성은 아마도 200여년에 걸친 에도 막부 통치 시대의 사회적 풍습이나 제도들이 지역 곳곳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세 일본에서는 지역 안에서 공동의사를 결정할 때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할 때 까지 두 번, 세 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만장일치를 만들었다. 일본에서는 구성원 전체가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이것을 소위 ‘와[知]’라는 이름으로 매우 중히 여긴다.

또한, 일본의 학자들 중에는 지역사회의 독특한 집단행동 형태를 사회적 제도로 설명하였다. 에도 시대 때 지역사회의 최소납세단위는 다섯 가구를 하나로 보았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계와 두레와 같이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이사를 가게 되면 나머지 네 가구가 그 한가구의 몫을 매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 사회에서 산업화의 바람이 불면서 도시에 설립된 공장마다 사람 구하는 일이 시급해지자 일거리가 적은 촌락의 인구들이 경제적 이유로 도시에 급격하게 유입되었다. 이처럼 촌락지역의 젊은 사람은 줄어들고 도시의 인구가 과밀해지는 1955~1973년 시기는 일본의 고도성장기로 일본 전체 인구 중 60%가 도시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거 시설과 환경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무렵 일본 정부는 지역문제가 심각해 질 것을 우려하여 지역사회를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며 시민사회에 주목하였다.<sup>10)</sup>

1969년 발간된 일본의 커뮤니티 문제 소위원회에서는 “커뮤니티란 종래의 오래된 지역 공동체와는 달리 주민의 자주성과 책임에 기초하여 다양화된 각종 주민 요구를 창의적으로 실현하는 집단”이라고 보았다. 특히 일본의 경제발전과 더불어, 그 이면엔 경제력을 상실해가는 노인과 취약계층사람들이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구도심 상가에 몰려 빈민촌을 이루어 살게 되며 더욱 단절된 삶을 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진단한다.

이에 따른 같은 문제들은 1995년 1월의 한신 지진으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지진은 일본사회안에 이웃을 의식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런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출현이라 하겠다.

일본사회안에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마을만들기’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마을만들기’란, 지역적인 범위 뿐 아닌 공동체 포함)이며 다른 하나는 적극적 의미로의 ‘지역재생’<sup>11)</sup> ‘지역활성화 사업’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 한국은 지난 1960년대 초부터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의 논리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발전 정책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단기간에 고도성장이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지만 이 정책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일본의 도시화와 산업화의 고도성장기로 인한 도시인구증가시기인 1955~1973에 비해 한국은 10년 정도 늦지만, 수도권 인구과밀 현상은 일본에 비해 강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로 국정 과제를 설정하여 ‘전국이 고루 잘사는 균형사회 건설’이라는 비전아래 지역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최근 들어 정부의 정책이 가장 크게 집중되고 변화하는 분야도 바로 이 지점이다.

즉, 정부 주도형 정책에서 탈피해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할 수 있도

10) 함유근, 김영수. 『커뮤니티 비즈니스』, 서울:삼성경제연구소, 2010, pp.124~126

11) 함유근, 김영수. 『커뮤니티 비즈니스』, 서울:삼성경제연구소, 2010, pp.127

록 유도하는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경제성장과 산업발전 촉진  
을, 1980년대는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1990년대에는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  
를 정책의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지역활성화 정책은 시대별로 정책 목표와 이에 따른 추진전략에 차이가 있었다. 1960년대  
지역활성화 정책은 공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기업체들만의 자본집약적 결과를 낳아 지역  
의 고용효과와 소통은 한계가 있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수입대체 효과는 컸지만, 지역적  
측면에서 기대되는 경제 및 사회문화적 효과는 미비하였다. 1970년대는 새마을 운동은 지  
역사회 개발론의 구체적 실행이라 할 수 있겠다. 농촌의 근대화를 위해 농업경제성을 개  
선하고 농민들의 의식과 행동을 근대적으로 바꾸는데 노력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확일적 하향방식의 추진은 한계를 띄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체계적 노력으로 도서지역의 생산 및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  
하기 위한 정책이 펼쳐졌다. 2000년에 들어와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람중심의  
마을만들기’ 등 인간의 관계성에 기초한 지역활성화에 대한 각 부서별 구체적 방안이 마  
련되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의 결과 정부주도형이 아닌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들이 개발되었고 그 중 하나인 커뮤니티 비즈니  
스가 주목받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한.일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흐름이 가진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할 수 있다.  
두 나라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대  
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대안이 나온 것은 분  
명해 보인다. 그러나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난다. 따라서 필자는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예술촌을 ‘커뮤니티 비지니스’에 국한시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양식 차이에 근거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예술  
촌에 대한 이와 같은 비교 분석을 통하여 지역과 공간 재생의 토대가 되는 커뮤니티의 중  
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비지니스의 지역기반 정신에 입각해 사례 분석을 통해 예술가 및 예  
술단체가 주도가 되는 예술촌의 지역 사회내의 역할과 예술촌 형성 및 운영에 있어 주민  
과 행정단체와의 연관성에 대해 탐구하려한다.

## 2. 예술촌의 개념 및 범주

### 가. 예술촌의 개념

예술촌에 대한 국가 별 용어로 예술 창작 스튜디오, Res artis, 창작마을, 스튜디오, 아뜰  
리에, 집단 창작 촌 등등 여러 가지로 정의된다.<sup>12)</sup> 본 연구의 사례에 의거해 일본과 한국,  
추가적으로 독일과 미국의 국가별 예술촌 개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사례의 중심이 되는 일본의 예술촌 개념정리의 경우 기존의 선행연구나 문헌조사 또는  
권위 있는 학자의 정의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대표적 예술촌과 일본  
문무과학성<sup>13)</sup>을 통해 일본예술촌의 총체적 정의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가나자와시민예술  
촌<sup>14)</sup>은 시민의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문화공간의 시설로 정의, 아키요시다이 국

12) 정인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예술창작스튜디오 계획개념 설정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건축계획전공 석사학위논문, 2009를 바탕으로 연구자료 첨가

13) <http://www.mext.go.jp/>

제예술촌<sup>15)</sup>은 복합문화시설로 야마구치현 문화진흥재단이 지정 관리함으로 일반 다목적홀 미술관과는 차별된 예술가 스스로 장기체제와 창작활동을 수행(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예술가와 지역과의 교류 등을 실시하는 공간으로 정의, 후지예술촌<sup>16)</sup>은 “예술마을”로 정의하며 시민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느긋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추구하며 자유로운 창조와 발상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장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정의, 재팬위키피디아<sup>17)</sup>는 일본과 일본국외예술가가 교류, 체재하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명시된 각각의 예술촌과 재팬위키피디아의 예술촌의 정의를 살펴본 결과, 일본의 예술촌을 ‘예술가들이 상주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미술관, 회의실, 레지던스, 작업실 등이 포함)’로 필자는 정의하게 되었다.

국가	관련용어	정의
독일	Res artis	특별히 예술가를 위해 제공되는 작업실 및 조직 뿐 아니라 독립적인 단체로서의 경영
미국	Artist Community Art colony Artist in Residence	일정한 기간 동안 작업실과 거주공간을 제공하며 예술가로 하여금 본래 생활권을 떠나 예술창작을 할 수 있도록 전문 민원이 조직되어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Allance of Artists Village기준)
일본	芸術村 (게지즈무라)	예술가들이 상주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미술관, 회의실, 숙박, 레지던스, 작업실 등이 포함)
한국	창작마을 창작스튜디오 예술인촌 아뜰리에 집단창작촌	우수한 젊은 작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문화예술의 수준향상을 도모하여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창작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함 (문예진흥원기준) 창작을 위한 공간부족으로 곤란을 겪고있는 젊고 유능한 작가들에게 폐교 또는 시장화된 공간을 임대하여 창작에 필요한 시장을 마련해 줌으로 보다 실험적이고 창조적인 작품활동의 산실이 되고 나아가 초,중,고등학교의 예술체험학습장 및 지역문화공간의 교류장터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예술창작 진흥프로그램을 가리킴 (문화관광부 기준)

<표2-2> 국가 별 예술촌 정의

#### 나. 공간에 따른 예술촌의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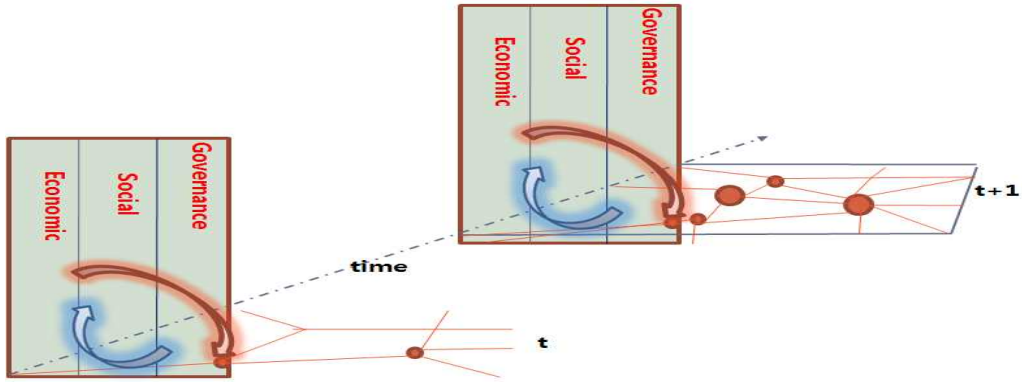
지역문화공간의 예술적 활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공간을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 따라서 공간의 성격은 달라질 것이며, 이는 자연스레 공간 안의 예술의 장르 및 시설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공간의 성격은 이와 같이 내부내용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띤다. 종전의 건물로만 바라보았던 공간의 인식과 달리, 공간자체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공간을 넘어선 공간의 가치와 함께 공간의 중요성을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14) <http://www.artvillage.gr.jp/>

15) <http://www.aiav.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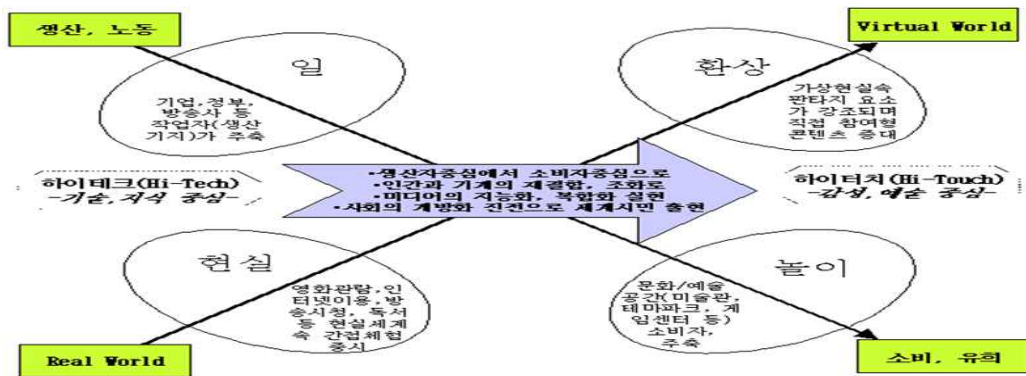
16) <http://fujiyama-art.main.jp/toppage/index.htm> , (문화 정보지 로제 Vol.50 글 )

17) <http://ja.wikipedia.org/wiki/>



[그림2-2] 시간의 흐름에 따른 커뮤니티의 성격변화: 저자구성

[그림2-2]와 같이 종전의 사회에서 공동체는 정부와 사회 경제적 구조에서 독립된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지녔다면, t는 시간으로 t+1은 시간의 흐름을 의미한다. 동그라미 원은 커뮤니티를 의미함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커뮤니티는 늘어가게 되어, 이들의 공간적 지역적 관계는 긴밀하게 되며, 정부와 사회 경제적구조안에서 커뮤니티와 상당한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림2-3] 새로운 공간의 개념: 저자구성

더불어 [그림2-3]과 같이 새로운 미래의 공간은 현실과 가상, 일과 휴식, 여가가 수렴되어 함께하는 공간으로 'The third place'로 공간을 범주화 한다면, 제1의 공간은 사적인공간, 휴식과 여가를 위한 가정, 휴양지 제2의 공간은 공적인 공간, 생업을 위한 작업장, 사무실 제3의공간은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결합으로 휴식과 일을 동시에 수행하게 될 것이다. 외부와 소통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는 공간이 증대됨이 새로운 공간의 추세이다.

이와 같이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예술촌은 지리적 고려와 함께 공간의 성격을 고려해야함을 발견한다. 이에 따라 아래의 예술촌의 범주화를 유형 별로 참조하여 어떤 성격의 공간으로 설정한 것 인지, 그리고 공간의 성격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파악함이 중요하다.

첫째로, 예술 창작 공간이다. 시각예술 창작실, 집필실, 도예실 등의 모든 예술작업실 공

간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창작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기구를 배치하고, 예술창작 진흥을 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향유 배급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운영이 필요한 곳이다.

둘째로, 예술을 통한 소통 공간이다. 박물관, 미술관, 향토관, 접견실, 창작실 등등 사실 예술을 기반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면 모두 해당되겠다. 일종의 예술공동체의 성격의 역할을 보여줌으로 예술가들 간의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 예술 시장과의 결합,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모두 포괄한다.

일정한 장르를 넘어 새로운 예술 개념의 적용을 통한 예술공동체는 지역사회의 맥을 같이 하면서 고급문화로 범주화 되어있는 예술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해 주며, 단순한 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넘어서는 공간으로 활용 될 것이다. 따라서 예술가와 다양한 계층이 모여 만들어진 예술공동체는 정책 적으로도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수반하는 ‘정치적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셋째로, 예술 교육 공간이 있다. 문화센터, 강당, 연습실, 교육실 등 다양한 예술교육의 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지역문화에 밀착하여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교육적 내용을 잘 살피고, 이를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로, 예술 보존 공간이 있다. 박물관, 미술관, 향토관 등 지역문화 보존의 공간으로 예술촌 안이 이용되는 경우로,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와 문화유산 체험 및 교육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접근성과 외부와의 접근성이 용이하여야 함으로 지리적 조건을 잘 고려해야 한다.<sup>18)</sup>

다섯째로, 예술가 거주 공간이 있다. 예술가들의 창작과 더불어 창작실과 더불어 거주공간으로 조성하여 이용하는 경우와 해외아티스트들이 일정기간 방문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거주공간과 더불어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술가의 거주공간을 오늘날 “레지던시”로 명명한다. 레지던시 공간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문제와 부딪히게 되는데, 거주공간이 예술가의 창작실과 함께 사용될 때는 지역주민과 더욱 밀착적인 관계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 지역에 밀착된 레지던시 공간일 수록 이 노력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예술 국제 교류 공간이다. 예술가들의 실제로 생활을 영위하는 거주공간과 더불어 장기거주와 교류를 목표로 하는 단기 거주로 구분 되, 이 경우 창작과 거주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장기적인 경우 지역사회와 밀착한 관계를 가져야 하며 예술가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단기거주는 교류를 위한 공간이 되면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창작과 거주가 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운영이 주어져야한다.

18) 박신의 외 5명 「서천군 문화예술인촌 조성 기본계획」 『문화예술인촌 조성을 통한 지역의 문화.경제적 파급효과』,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2008, p.117~118

예술촌의 범주	예술창작	예술소통	예술교육	예술보존	예술가 거주	국제교류
공간	창작실, 집필실, 도예실 등의 모든 예술작업실 공간으로 이용하는 경우	박물관, 미술관, 향토관, 집건실, 창작실 등등 사실 예술을 기반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공간	문화센터, 강당, 연습실, 교육실 등 다양한 예술교육의 공간	박물관, 미술관, 향토관 등 지역문화보존의 공간	레지던시	다양함

<표 2-3> 공간에 따른 예술촌 범주화 표: 저자구성

다. 운영주체에 따른 예술촌 만들기

1) 지역주민 주도형 예술촌 만들기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시설활용을 진행하고, 또 여타 운영에서도 지자체만의 결정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되고 주민들의 의견으로 예술촌의 내 외부적 구성을 이루어 가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지역 주민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 수용 의사가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예술촌은 한국에서 거의 없는 사례로, 이 유형은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장점과 함께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주민이 기여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2) 예술가 및 단체 등 전문가 주도형 예술촌 만들기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예술공간을 활용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자신의 창작공간을 정착화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수반된다. 공간의 창작과 성격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술가들은 지역사회와 주민들과 협의하고 협동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장르별 특성과 예술가 개인, 예술 단체, 예술가의 공동 공간이냐에 따라서 예술촌의 형태도 달라질 것이다.

3) 행정단체 주도형 예술촌 만들기

지역의 행정단체가 그 지역의 소외지역이나 폐공간 등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곳을 미리 파악하여 지역에 맞는 예술가나 예술단체를 섭외하거나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섭외하여 예산수립은 물론 설립자체를 주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단체가 주도함에 따라 예술촌 형성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나, 예술가의 창작환경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면 시설위주의 공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행정단체가 주도하더라도, 예술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술촌 형성이후에도 운영이나 관리가 관료적 방식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예술촌을 계획하기 이전에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그 지역에 상주하여 필요를 찾음으로 행정적 집행과 지역문화공간을 설립 하여야겠다.

### 3. 사례 분석

가. 예술가 및 예술단체 주도형의 ‘다자와코예술촌(田沢湖芸術村),  
민들레연극마을’ 사례 현황

#### 1) 일반 및 운영현황

먼저, 다자와코예술촌(田沢湖芸術村)은 아키타현(秋田県)에 위치하여 있으며 일본에서 가장 깊은 호수인 타자와코(田沢湖)옆에 자리하고 있다. 다자와코예술촌 인근 지역인 센보쿠(泉北)는 ‘민요의 보고’라고 불린다. 예술촌은 면적 100,000㎡ 부지에는 800객석을 갖춘 극장, 350명이 숙박 할 수 있는 시설, 민족예술 연구소, 크고 작은 연습실, 온천시설 ‘유포포’(ユポポ), 보육소 시설과 단원기숙사<sup>19)</sup> 등 많은 건물이 들어서 있고 도예가들도 옆으로 이주해와 일종의 문화촌이 형성 된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시설들의 세부적 명칭과 시설들의 특징과 더불어, 이곳의 운영현황을 살필 필요가 있겠다. 운영현황의 출발은 가무극단 ‘와라비(蕨)극단’의 창설과 의사결정과정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와라비자(わらび座-와라비극단)’은 전후 부흥을 향한 1951년 도쿄에서 출생하여 극단 이름은 굶주림에 고통받는 농민을 구한 산채 고사리처럼 사람들이 사는 힘을 목표. 일본의 전통예술을 공연하는 민족 가무극단으로, 전통예술의 실험극단을 목표로한다. 이들은 작업 공간을 살피던 중 1953년 아키타현(秋田県) 내 다자와코코마치(田沢湖町) 지역에 들어오게 되었다. 크려는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곳에 처음 이주해 왔을 때 제각기 흩어져 지내다 점차 각자의 건물을 갖게되며 공동생활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1974년 민족예술연구소 재단법인화 및 전용극장의 건설로 자연스레 지역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1996년 ‘다자와코예술촌’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것을 기반으로 와라비전용극장에서 주로 극단의 창작활동과 연습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아직은 특별한 행사의 때에 와라비전용극장을 이용하여 작품을 시연한다. 주로 순회공연을 많이 다니는 와라비극단은 공연활동 준비는 제작부서가 따로 있어 담당하게되며 연간 1000회 이상의 공연을 올리기위해, 센타를 본부에 두고 삿쵸로, 우라와, 동경,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에 사무소를 두고 49여명의 부원이 전국에 퍼져있다. 지방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약 반년전부터 임시 사무소를 설치하여 그곳에 살며 준비를 진행하게 된다. 와라비극단 책임하에 실행위원회를 조직하여 공연을 해오며 진행되어지고 있다.

‘와라비극단’이 의견을 공유하는데 있어 극단의 활동방침을 2년마다 한번 씩 열리는 총회에서 결정을 하게되고 전원이 발언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고 임원도 전원이 결정하게 된다. 또한 단원전체의 급료도 전원 동액으로 이루어진다.

와라비극단운영에 전국적인 전통예술우호가들의 지원과 기업 및 단체의 협찬은 지금까지 와라비극단의 작품활동과 그들의 예술발판에 도움을 주고 있다. ‘와라비전용극장’은 1974년 전국에서 수백만의 지원(예술 우호가)들의 도움으로 창설하게 된다. 공적기관의 원조없이 ‘와라비전용극장’이 세워지게되었고, 1962년 설립된 와라비극단의 연구 자료실이 기업과 단체들의 협찬으로 74년 재단법인 ‘민족예술연구소’로 발전하여 각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곳은 일본 전국의 민요 민속춤의 청각자료 11만점, 영상자료 천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민속도구 자료가 장서 3만권 넘게 비치되어있다. 무대 창조팀과 6개의 가무연구회로 연구소는 이루어져있어 와라비극단의 작품창조에도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일본

19) 아키타팬 닷컴. <http://www.akitafan.com/> (아키타현 관광종합사이트- 中 ‘아키타현 관광안내지도’)

각지방 예능의 비교분석이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다. 학생과도 연합하여 ‘와라비극단 수학여행’ 프로그램이 생기게 되었다. 운영에 있어서는 발생시 わらび座 (와라비자)극단 뿐이었으나 그러나 일이 늘고 매출이 오르게 되면서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숙박 시설과 온천 시설 예술촌 기능을 갖추고 가게되어 오늘날 다자와 예술촌의 형태를 지니게 된 것이다.

반면, 민들레연극마을은 경기도 화성 이화3리 뱅곳마을에 위치한 민들레연극마을은 2006년도에 만들어져, 극단 민들레를 중심으로 발전된 경위이다. 따라서 민들레연극마을을 이해 하려면 극단민들레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일 것이다. 극단민들레가 민들레연극마을을 발전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03년도부터 장애우를 데리고 한달에 한번씩 공연프로그램을 펼쳤던 극단민들레는 2005년 농림부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제안을 받게된다. 2003년 민들레 놀이 극 연구소를 운영하던 중, 기본 민들레의 가치가 전통, 어린이, 농촌으로 농촌이 가치를 가져야하는데 그것이 전통문화로 풀어질 수 있으며 아이들에게 아스팔트 위에서가 아닌 손에 흙이 묻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는 공간을 지향하고 있었던 중이라 제안을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민들레 연극마을은 ‘극단민들레’의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전통 연희극과 ‘민들레놀이극연구소’의 놀이극, 체험교육프로그램,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결합하여 기존의 농촌 체험마을과는 다른 농촌과 관객, 단체가 상호 진취적 형태로 자리잡아 농림부로부터 연극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최초로 연극을 주제로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야외극장 및 설치극장에서 다양한 공연과 축제, 체험이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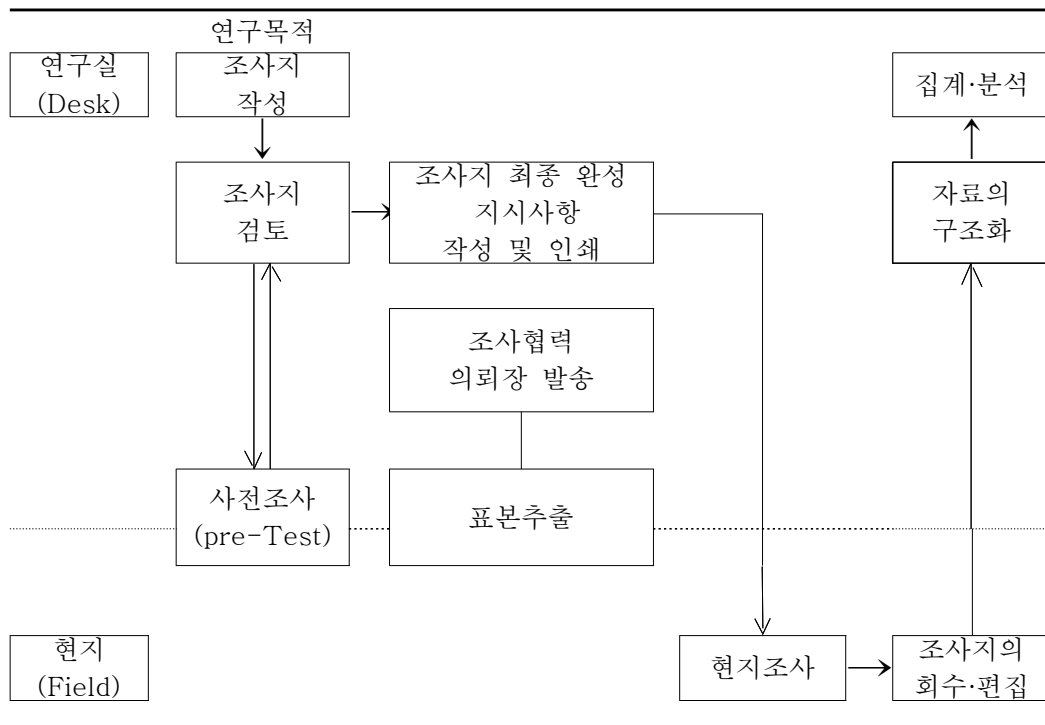
민들레 연극마을은 체험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1인당 이용료, 1만 5000원~3만5000원(1박2일, 2011년 8월 기준)을 받는다. 숙박도 가능한 이곳은 탈춤과 우리가락, 천연염색, 썩개떡 만들기, 짬야찌 만들기, 고구마 구워먹기 와 가은 먹거리 체험과 모내기 양파캐기, 옥수수나 포도따기, 보리밭 밟기 등 농촌 체험 프로그램과도 연계된다.

민들레 연극마을의 운영에 있어서, 현재는 극단민들레와 이화뱅곳마을 주민들이 운영을 한다지만 실제로는 극단 민들레가 주가 되어 운영되고, 대개 축제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 들이고있는 실정이다. 2006년 설립 당시 극단 민들레 송인현대표와 대표인 부녀회장, 이장, 청년회장이 모여 민들레연극마을을 허가를 인계받고 소극적이었던 주민들이 차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민들레연극마을의 구조는 추진위원장으로 송인현(극단 민들레 대표), 추진위원으로 오명환(이장), 김진원(전 이장), 송기덕, 김형규로 구성되어있으며 촌장으로 송기천 농촌활동으로 송돈섭, 송두섭 외 마을의 대표 주민들과 민들레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축제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를 부녀회에 지급하고 각종 먹거리 수익을 부녀회 수익으로 잡는다. 초창기에는 수익 구조가 불분명하여 소극적인 참여자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일정한 수익 구조가 생기면서 마을 부녀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운영구조에 있어, 다양한 축제가 이루어질 때마다 축제 위원장은 민들레연극마을 대표와 마을 이장이 예술감독에 해당되는 일은 극단 대표가 맡고, 마을과 연관된 일은 이장이 주도하여 축제를 진행한다. 사무국은 연극마을 사무장이 중심이 되어 이끌면서 극단 기획실이 나머지 행정적인 일을 보조한다. 기획분과는 극단민들레 기획실을 중심으로 꾸려진다. 축제에 참여할 공연팀을 유치하고 축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운영분과는 마을 부녀회와 극단민들레가 중심이 되는데, 예술적인 부분은 극단이 맡고 기타 운영에 대한 부분은 부녀회가 주도하여 일한다.

## 나. 사례연구

### 1) 사례조사 설계

연구의 목표가 되는 조사 대상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해당 자료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통계조사(統計調査, statistical survey)와 사례조사(事例調査, case study)가 존재한다. 통계조사는 어떠한 현상을 수량적으로 파악하여 보편화하는 과정으로 ① 다수의 사례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② 전체 속에서 일부를 취하여 소수의 측면을 봄과 동시에 ③ 객관적으로 계수(計數) 또는 계량(計量)하여 ④ 상관관계 등과 같은 통계적 수법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분석법에 의하여 보편화를 행한다. 반면, 사례조사는 개인 또는 집단, 지역사회 등과 같은 소수의 사회적 단위의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 및 조사하여 이를 통해 일반적인 법칙을 찾아내는 연구방법이다. 사례조사는 ① 극히 소수의 사례에서 ② 다수의 측면, 즉, 전체 속에서 집중적으로 대상을 취함과 동시에 ③ 주관적이고 통찰적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④ 주관적이고 심층적으로 보편화를 행하게 된다.<sup>20)</sup> 본 연구에서는 대상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실시하는 사례 조사를 기본으로 전체적인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그림 2-4] 사례조사의 전 과정

출처 : 김응렬. 『사회조사방법론의 이해』,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p14 재구성.

사례조사와 함께 병행되는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는 조사 대상과의 1대 1 질의 응답을 통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구 방법으로, 심층 인터뷰의 대상, 즉, 응답자들의 응답의 이유, 의견, 가치, 동기, 경험 등의 걸로 나타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욕구, 감정과 같은 비언어적 반응까지 관찰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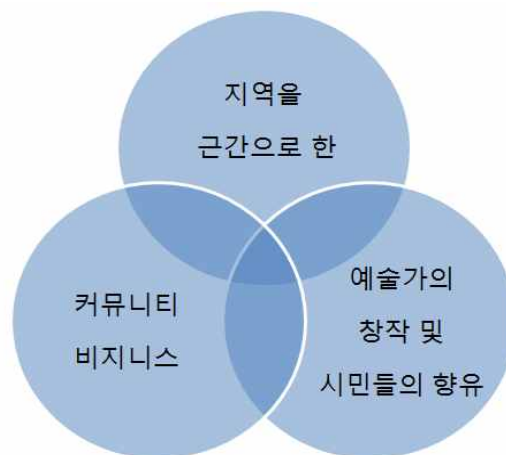
심층 인터뷰의 경우는 응답자가 속한 집단에 대한 포괄적 연구보다는 응답자 개개인에게

20) 김응렬. 『사회조사방법론의 이해』,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p14 참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축소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심층 인터뷰에서는 과거의 다른 응답들을 바탕으로 추가 질문을 더하거나, 혹은 인터뷰의 대상에 맞게 질문을 변형하거나 순서를 조절할 수 있어 응답자로부터 대상에 맞는 상세한 대답을 구할 수 있고, 응답의 불명확성을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응답자와 질문자 간의 유대 관계의 형성을 통하여 일반적인 조사 방법에서는 시도하지 못하는 내용까지도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며, 인터뷰의 환경, 응답자의 성격 등에 대한 기록들을 인터뷰를 하는 자가 보충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가능하고, 우발적인 반응이나 사건들에 대한 정보 역시 얻을 수 있다.<sup>21)</sup> 연구의 설계와 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다수의 관계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포괄적 통계치를 산출하는 통계조사, 즉, 정량적 연구 방법과 특정 대상을 선정하여 해당 사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사례 조사, 즉, 정성적 연구 방법으로 진행 가능하다. 본 연구의 핵심인 ‘예술가 및 주도형’의 사례분석으로 예술촌의 대표자의 의견을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함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사례조사는 본 논문의 출발인 이케가미 준 외<문화경제학>에서의 예술가의 예술의 창작과 시민의 향유를 예술의 정의로 볼 때, 주체 별 주도 유형에서 ‘예술가 및 예술단체 주도형’이 예술의 정의와 가장 근접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한. 일 예술촌에서 각각 한 사례씩을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비교분석 함에 있어 선정된 사례는 첫째로, 예술의 창작과 시민의 향유가 동시에 드러나고 둘째로,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예술촌’으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지역을 근간으로 한 예술촌이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념의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예술촌을 탐색한 결과 일본의 ‘다자와코예술촌(田沢湖芸術村)’과 한국의 ‘민들레연극마을’을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 하고자 한다.



[그림 2-5] 사례 대상: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예술촌 선정

사례연구를 진행함에 앞서 사례연구 설문지 및 심층인터뷰 설문지를 설계하고 완성된 설문지 및 심층인터뷰 설문지를 사전에 e-mail 및 우편물로 송부하여 설문지 및 설문지내용을 방문에 앞서 살펴보고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 다시 말해, 사례분석 서면조사 및 대면 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한국의 민들레 연극마을 경우, 공간 주체인 민들레연

21) 김대행. 『방송의 언어문화와 미디어 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p28, 김경우. 『사회복지조사방법론 강의』, MJ미디어, 2008, p251 참조.

극마을대표(송인현) 의견은 대면인터뷰로 진행하였으며 일본의 다자와코예술촌대표자는 (Kojima Katsuaki)서면 인터뷰지로 처리하였으며, 보충이 필요한 내용들은 추가 질문을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여 사례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마무리한다. 또한 인터뷰 과정 중 대표자에 의한 주체 별 의견의 오류를 막기 위해 실제로 ‘주체 별’ 의견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추가적으로 구성하게 된 것이다.

설문지를 통해 공간 주체의 의견과 더불어 지역주민과 타 지역주민 예술가 및 단체, 행정 단체 의견을 취합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빈도분석과 spssv12를 활용해 통계분석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예술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과 창작자(예술가 및 단체) 그리고 관(재단)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관(재단)의 지원 역할과 지원 가능 부분에 대해 고찰 할 수 있었다.

더불어 논문의 이론적 배경인 커뮤니티 비즈니스적 관점과 더불어 공간에 따른 예술촌의 범주(예술창작/예술소통/예술보존/예술교육/레지던시/국제교류/)를 비교고찰 하고자 한다.

## 2) 다자와코예술촌, 민들레연극마을 ‘대표자’ 심층 인터뷰

본 사례 연구의 전개는 1장 연구 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의 자료를 원천으로 활용하는 자료의 다원화 (Triangul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례연구는 복수의 자료원을 사용했을 때 더욱 설득력 있고 정확 한 것으로 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3장의 예술가 및 예술단체 주도형으로 다자와코 예술촌 민들레연극마을의 일반현황 및 특성과 추진경위 및 발전, 프로그램,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이때 필요한 2차 자료는 각 예술촌 대표자에게 수집한 사업계획서 및 기획서 등 예술촌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예술가 및 예술단체 주도형’의 사례연구로 대표자와 예술촌을 이루는 주민대표자 측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깊이 있는 조사를 시도하였다.

먼저, 일본의 다자와코예술촌의 대표자인 다자와코예술촌대표(Kojima Katsuaki)의 의견을 서면인터뷰로, 한국의 공간 주체인 민들레연극마을대표(송인현)의견은 대면인터뷰로 진행하였다.

주체 별 비교 연구를 위해, 대표자 성격을 지닌 다자와코예술촌의 대표자 다자와코예술촌 대표(Kojima Katsuaki)와 민들레연극마을의 송인현 대표에게 공통적인 질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사례연구 분석에 있어 지역문화공간으로서 예술촌의 전개 과정 및 운영주체에 따른 인식과 발전방향, 예술촌의 예술범주, 공간의 탐색, 예술가 주도형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의미와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 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상자들의 사전 동의 하에 대표자의 실명을 기재 토록하며 조사개요는 <표2-4>과 같다.

구분	대상	방법	조사개요
개인 서면 인터뷰	다자와코예술촌 내 와라비극장 지배인- Ozawa Takeshi 지배인	2011년 9월 13일 e-mail 회신	·설립 취지 및 의미 ·수익구조 ·예술가의 거주형태 ·운영주체와 그에 따른 평가 ·행정(관)의 역할과 그에 따른 평가 주민과의 관계 ·예술촌 예술범주 ·예술촌 공간의 탐색
심층 인터뷰	민들레연극마을 대표: 송인현 대표	2011년 8월 11일 아르코예술극장로비	·설립 취지 및 의미 ·수익구조 ·예술가의 거주형태 ·운영주체와 그에 따른 평가 ·행정(관)의 역할과 그에 따른 평가 주민과의 관계 ·예술촌 예술범주 ·예술촌 공간의 탐색

<표 2-4> 심층인터뷰 실시 개요

먼저, 일본의 다자와코예술촌의 대표자인 다자와코예술촌대표(Kojima Katsuaki)의 서면인터뷰는 각각 3차례의 걸쳐 진행하게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질문을 계속적으로 e-mail을 통해 답변을 주고 받았다.

민들레 연극마을의 대표인 송인현 대표는 심층 인터뷰로 진행하였으며, 질문내용을 e-mail을 통해 먼저 발송한 후, 파악하게 하였으며 장소는 아르코예술극장에서 동의하에 녹음을 병행하며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체 별 비교 연구를 위해, 대표자 성격을 지닌 다자와코예술촌의 대표자인, 다자와코예술촌대표(Kojima Katsuaki)와 민들레연극마을의 송인현대표에게 공통적인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다음은 예술촌 대표자와의 인터뷰이다. 전반적으로 설립 취지 및 의미와 수익구조 예술가의 거주형태, 운영주체와 그에 따른 평가, 행정(관)의 역할과 그에 따른 평가, 주민과의 관계, 예술촌의 예술범주, 예술촌 공간 탐색의 관점에서 질의하였다. 요약한 주요 내용은 <표2-5>과 같다.

구분	질문	대답
설립 취지 및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촌(예술마을)의 비전?</li> </ul>	<p>A1:지역에 뿌리를 둔 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본격적인 복합 문화 공간을 목표로 합니다.</p> <p>다자와코예술촌대표- Kojima Katsuaki</p> <p>A2: 농촌과 연계된 소박한 연극. 극장에서 조명, 의상, 무대장치가 화려한 연극이 아니라 소박한 연극을 만들어서 배우가 보이고 배우와 관객이 소통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연극을 만들고 싶은 것이다.</p> <p>민들레연극마을대표: 송인현</p>
운영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구조는?</li> </ul>	<p>A1: 주식 회사 わらび座 극단 부문, 오락 부문 관광시설(예술 마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p> <p>다자와코예술촌대표- Kojima Katsuaki</p> <p>A2: 민들레연극마을이 농림부에 등재, 평소 민들레 연극마을의 일손은 사회적기업인력으로 동네 어머니들 2분'저고리아주머니두분 (현영자/장순희)'을 고용하여 전체적인 일손을 도우신다. 또한 촌장님과 부녀회장, 청년회장이 일을 거둔다.</p> <p>민들레연극마을대표-송인현</p>
예술가 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가가 예술촌 안에 거주하는지?</li> </ul>	<p>A1:와라비극단 배우 및 직원은 예술 마을의 사택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인근 마을에 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예술 마을은 창조의 장소이어야 배우 직원이 어디에 사는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통근 것을 생각하면 예술 마을, 또는 그 근교에 제한됩니다. 동북에 뿌리를 둔 극단으로 동북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이 무대 표현을 할 때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p> <p>다자와코예술촌대표- Kojima Katsuaki</p> <p>A2:여타 예술촌과 같이 직접 지역에 극단 전체가 상주해서 들어가는 것도 참 좋긴 하지만 예술가들이 서울(도심)을 떠나 작업을하기가 불안하고 삭막해질 수 있더라, 따라서 평소연습은 서울연습실에서하고, 작품을 집중적으로 할 때는 2박3일 연극마을에서 연습을 한다.</p> <p>민들레연극마을대표-송인현</p>
예술촌 수익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 구조는?</li> </ul>	<p>A1:수입은 극장 입장료, 워크샵 강사료, 매점 매출, 양원 시설 매출 외부 공연 비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화청은 극장 음악당 등의 문화 시설 (이하 "극장 음악당"라한다)가 중심이되어 지역 주민과 예술 관계자 등과 함께하는 사업을 돕습니다.</p> <p>다자와코예술촌대표- Kojima Katsuaki</p> <p>A2: 주 수익구조는 마을 내 체험과 공연을 이지만 그리 크지는 않다. 이에 문화재단 및 행정단체의 지원을 통해 수익구조에 대한 발판 단계에 있다.</p> <p>민들레연극마을대표-송인현</p>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금 예술 마</li> </ul>	<p>A1: 다자와코 예술 마을은 일본 유일의 극장을 중심으로 한 복합 문화 시설입니다. 고사리 극장도 그 중심으로 일</p>

주체와 그에 따른 평가	<p>을 운영 주체가 지금까지 해 온 역할의 평가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대응하는 운영주체는?</li> </ul> <p>예를 들어,          ① 민간 주도 ② 예술가 및 예술가 집단의 주도 ③ 행정 기관 주도 ④ 기타 ( )</p>	<p>본 속의 대표적인 지역 극장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지역과 연계하여 창조 도시되지 않는 창조 농촌의 핵심 시설로서, 마을 만들기에 공헌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p> <p>다자와코예술촌대표- Kojima Katsuaki</p> <p>A1: 1 &amp; 3입니다.          행정 단체의 자금 원조하에 민간 주도가 바람직합니다.</p> <p>다자와코예술촌대표- Kojima Katsuaki</p> <p>A2: 1 &amp; 3입니다.          행정 단체의 자금 원조하에 민간 주도가 바람직합니다.</p> <p>민들레연극마을대표- 송인현</p>
주민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주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li> </ul>	<p>A1: 지역 주민에 있어서 ざわこ 예술 마을은 고용의 장소이며, 휴식의 장소이기도합니다.</p> <p>다자와코예술촌대표- Kojima Katsuaki</p> <p>A2: 가장 큰 것은 이 공간이 환경적으로와 시골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았던 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커진 것이다. 심리적으로, 마을의 자랑거리가 생겼다고 불려지는 민들레연극마을은 ‘마을의 자긍심’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 또한 경제적으로, 마을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신화놀이터’와 더불어 일자리를 자연스레 마을사람들 20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려한다.</p> <p>민들레연극마을대표 -송인현</p>
예술촌 공간 탐색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공간에서 개선되어야 할 공간은?</li> </ul> <p>①작업실 ②연습실          ③박물관 ④전시실          ⑤향토관 ⑥공연장          ⑦레지던스공간          ⑧카페 ⑨식당 ⑩컴퓨터          ⑪ 기타</p>	<p>A1: ⑥ 공연장 ⑦ 레지던스 공간 ⑧카페 ⑨ 식당</p> <p>다자와코예술촌대표- Kojima Katsuaki</p> <p>A2: ⑥ 공연장 ⑦ 레지던스 공간 ⑪ 기타(주차 및 편의 시설)</p> <p>민들레연극마을대표-송인현</p>
예술촌 핵심 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촌의 keyword는?</li> </ul>	<p>A1: (자연, 지역, 시대)와의 공생</p> <p>와라비극장 지배인- Ozawa Takeshi</p> <p>다자와코예술촌대표- Kojima Katsuaki</p> <p>A2: 전통, 어린이, 농촌</p> <p>민들레연극마을대표-송인현</p>

자료) 연구자가 직접 진행한 심층면접 내용을 다시 약식으로 요점 정리함, ‘...’는 중략 표시임.

<표 2-5> 예술촌 대표자 심층인터뷰 내용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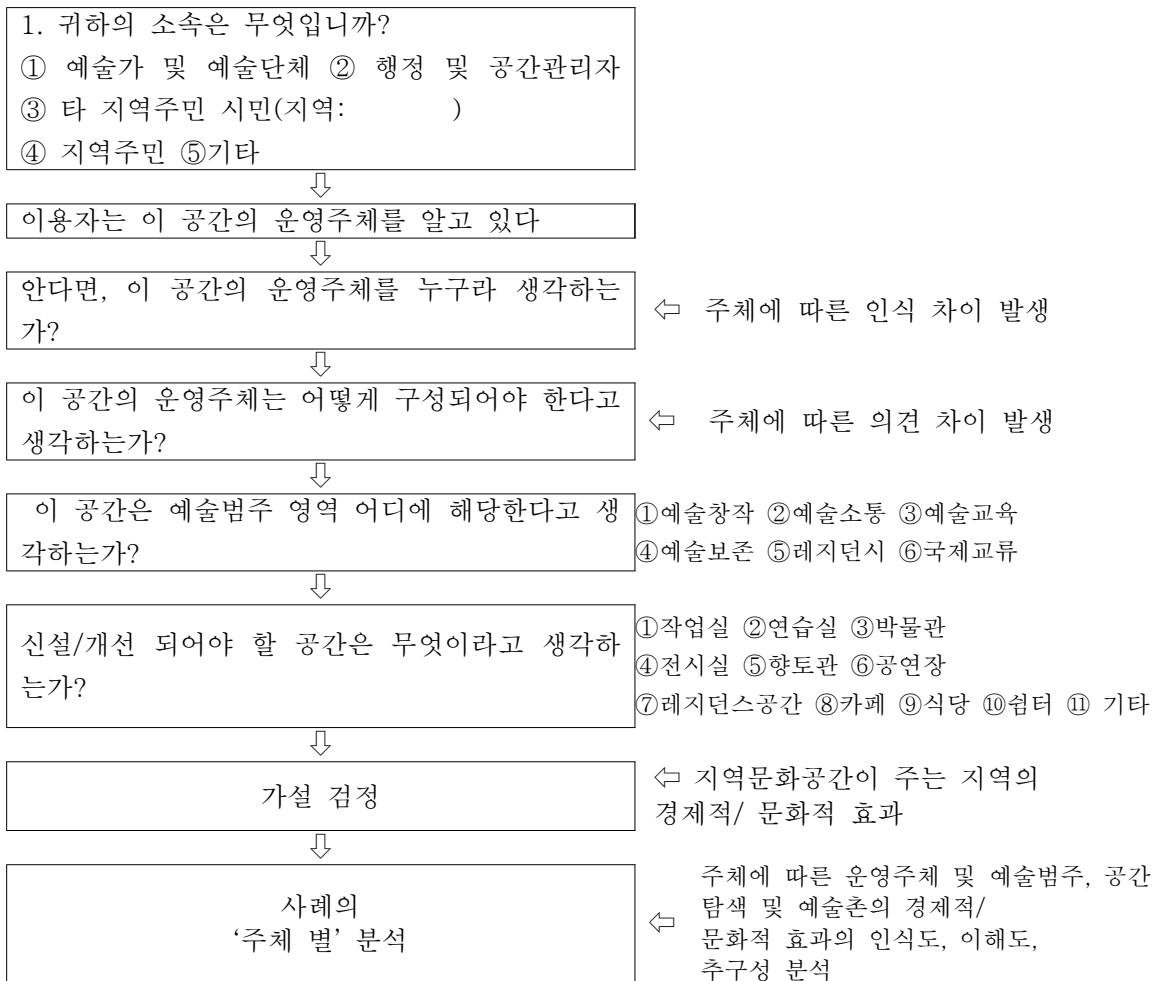
3) 예술가 및 단체주도형으로의 다자와코예술촌, 민들레연극마을 ‘주체별’

설문지

다자와코예술촌 62부, 민들레 연극마을 62부로 총 124부로 빈도분석과 함께 가설검증을 spss v12로 통계 화 하였다. 다자와코 예술촌과 민들레연극마을의 비교가 아닌 예술가 및 예술단체 주도의 예술촌인 두 사례의 지역주민, 타 지역주민, 예술가 및 예술단체, 행정기관 소속의 의견을 들음으로 인터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빙성 결함을 보충하였다. 예술촌 대표자를 통해 타 주체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지역주민, 타 지역주민, 예술가 및 예술단체, 행정기관) 의 소속(주체)별 의견을 들어봄으로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해당 설문지의 설계과정은 다음과 같다.

예술가 및 단체 주도형인

다자와코예술촌, 민들레연극마을 ‘주체 별’ 설문



[그림2-6] 질문지 설계도

가) 빈도분석

다음은 본 연구에 쓰인 기본 인구 통계학적 변수 및 알게 된 경로 변수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표이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성별	남성	37	29.8	29.8	29.8
	여성	87	70.2	70.2	100.0
	합계	124	100.0	100.0	
연령	10대	8	6.5	6.5	6.5
	20대	26	21.0	21.0	27.4
	30대	36	29.0	29.0	56.5
	40대	31	25.0	25.0	81.5
	50대 이상	21	16.9	16.9	98.4
	기타	2	1.6	1.6	100.0
	합계	124	100.0	100.0	
소속 (주체)	예술가 예술단체	52	41.9	43.7	43.7
	행정 기관	7	5.6	5.9	49.6
	타 지역주민	39	31.5	32.8	82.4
	지역주민	21	16.9	17.6	100.0
	합계	119	96.0	100.0	
	결측	5	4.0		
	합계	124	100.0		
알게 된 경로	사원	41	33.1	34.2	34.2
	인터넷	14	11.3	11.7	45.8
	광고물	11	8.9	9.2	55.0
	지인의소개	54	43.5	45.0	100.0
	합계	120	96.8	100.0	
	결측	4	3.2		
	합계	124	100.0		

<표2-6> 예술가 및 예술가 주도형 예술촌: 다자와코예술촌, 민들레연극마을 사례 연구에 쓰인 기본 인구 통계학적 변수

전체 124부에 대한 빈도분석으로, 예술가 및 예술가 주도형 예술촌의 ‘주체 별’ 연구에 쓰인 기본 인구 통계학적 변수는 성별은 여성이 70.2%를 차지하여, 남성보다 월등히 높았다. 연령은 10대를 제외 하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이는 수학여행 프로그램과의 연계시즌이 아니었기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음을 추측한다.

소속(주체)별 유효 퍼센트로 측정했을 때, 예술가 및 예술가 단체가 43.9% 행정기관이 5.9%, 타 지역주민이 32.8%, 지역주민이 17.6%로 나타난다. 예술촌을 알게 된 경로는 지인을 통해 방문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아래의 표는 효과적인 ‘주체 별’ 분석을 위해 한국 설문지와 일본 설문지로 각각 나누어 빈도분석을 한 결과표이다. 주체가 기준이 되어 주체 별 운영주체 및 예술범주, 공간 탐색 및 예술촌의 경제적/문화적 효과의 인식도, 이해도, 추구성 분석 할 것이다.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소속 (주체)	예술가 예술단체	4	6.5	6.7	6.7
	행정 기관	4	6.5	6.7	13.3
	타 지역주민	34	54.8	56.7	70.0
	지역주민	18	29.0	30.0	100.0
	합계	60	96.8	100.0	
	결측	2	3.2		
	합계	62	100.0		

<표2-7> 민들레연극마을 소속(주체) 빈도분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소속 (주체)	예술가 예술단체	48	77.4	81.4	81.4
	행정 기관	3	4.8	5.1	86.4
	타 지역주민	5	8.1	8.5	94.9
	지역주민	3	4.8	5.1	100.0
	합계	59	95.2	100.0	
	결측	3	4.8		
	합계	62	100.0		

<표2-8> 다자와코예술촌 소속(주체) 빈도분석

- 운영주체에 대한 빈도분포

질문	소속(주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이 공간의 운영 주체는 누구라 생각하는가?	민간주도	16	30.8	43.2	43.2
	예술가 예술가집단 주도	21	40.4	56.8	100.0
	합계	37	71.2	100.0	
	결측	15	28.8		
	합계	52	100.0		
이 공간의 운영 주체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민간주도	24	46.2	52.2	52.2
	예술가 예술가집단 주도	21	40.4	45.7	97.8
	행정기관 주도	1	1.9	2.2	100.0
	합계	46	88.5	100.0	
	결측	6	11.5		
합계	52	100.0			

<표2-9> 운영주체에 대한 예술가 및 예술 단체 관련자의 의견

질문	소속(주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이 공간의 운영 주체는 누구라 생각하는가?	민간주도	1	14.3	14.3	14.3
	예술가 예술가집단 주도	4	57.1	57.1	71.4
	행정기관 주도	2	28.6	28.6	100.0
	합계	7	100.0	100.0	
이 공간의 운영 주체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민간주도	1	14.3	33.3	33.3
	행정기관 주도	2	28.6	66.7	100.0
	합계	3	42.9	100.0	
	결측	4	57.1		
	합계	7	100.0		

<표2-10> 운영주체에 대한 행정기관 관련자의 의견

질문	소속(주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이 공간의 운영 주체는 누구라 생각하는가?	민간주도	3	7.7	18.8	18.8
	예술가 예술가집단 주도	13	33.3	81.3	100.0
	합계	16	41.0	100.0	
	결측	23	59.0		
	합계	39	100.0		
이 공간의 운영 주체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민간주도	13	33.3	36.1	36.1
	예술가 예술가집단 주도	23	59.0	63.9	100.0
	합계	36	92.3	100.0	
	결측	3	7.7		
	합계	39	100.0		

<표2-11> 운영주체에 대한 타 지역주민의 의견

질문	소속(주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이 공간의 운영 주체는 누구라 생각하는가?	민간주도	7	33.3	46.7	46.7
	예술가 예술가집단 주도	8	38.1	53.3	100.0
	합계	15	71.4	100.0	
	결측	6	28.6		
	합계	21	100.0		
이 공간의 운영 주체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민간주도	12	57.1	57.1	57.1
	예술가 예술가집단 주도	9	42.9	42.9	100.0
	합계	21	100.0	100.0	

<표2-12> 운영주체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위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각각 주체에 따라 운영주체에 관한 인식도가 다르게 나타

났으며, 운영주체의 구성도가 다르게 발전해야 함을 표현하였다.

현재의 운영주체에 관해서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 관계자 경우, 유효 퍼센트 기준으로 민간주도로 본 경우가 43.2%, 예술가 및 예술단체 주도로 본 경우가 56.8%이다. 또한 행정기관 관계자의 유효 퍼센트 기준으로 민간주도로 본 경우가 14.3%, 예술가 및 예술단체 주도로 본 경우가 57.1%, 행정기관주도로 본 경우가 28.6%이다.

유의 깊게 볼 것이 타 지역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으로, 객관적인 의견 제시로 예술촌 주체자와 향후 예술촌 경영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 해 낼 수 있겠다. 먼저 타 지역주민은 유효 퍼센트 기준, 민간주도로 본 경우가 18.8%, 예술가 및 예술단체 주도로 본 경우가 81.3%이다.

지역주민의 의견은 유효 퍼센트 기준, 민간주도로 본 경우가 57.1%, 예술가 및 예술단체 주도로 본 경우가 42.9%이다. 타 지역주민과 지역주민 설문 의 경우 행정기관 주도엔 응답자가 없었다.

그렇다면 향후 예술촌 경영에 있어, 운영주체의 구성을 예술가 및 예술단체관계자와 지역주민은 민간주도에 의해서 발전되길 바라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행정기관 관계자는 행정기관에 의해 발전되길 바랐으며, 타 지역주민은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의해 발전되길 의견을 표했다.

-예술범주 영역

질문	예술범주	빈도	퍼센트	케이스 퍼센트
이 공간은 어느 예술범주 영역?	예술 창작	77	30.6	62.6
	예술 소통	44	17.5	35.8
	예술 교육	69	27.4	56.1
	예술 보존	35	13.9	28.5
	레지 던시	3	1.2	2.4
	국제교류	24	9.5	19.5
	합계	170	100.0	148

<표2-13> 사례 통합의 현 예술범주대한 의견

질문	예술범주	빈도	퍼센트	케이스 퍼센트
보완 되어야 할 부분?	예술 창작	60	28.2	49.6
	예술 소통	31	14.6	25.6
	예술 교육	44	20.7	36.4
	예술 보존	27	12.7	22.3
	레지 던시	11	5.2	9.1
	국제교류	40	18.8	33.1
	합계	213	100.0	176.0

<표2-14> 사례 통합의 보완되어야 할 예술범주대한 의견

예술가 및 단체 주도형의 다자와코예술촌, 민들레연극마을 사례의 통합적 분석으로 예술 범주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예술범주를 크게 6가지로, 예술창작/예술소통/예술교육/예술보존/레지던시/국제교류로 살펴본 바 예술창작이(케이스퍼센트: 62.6%) 두드러졌으며, 다음으로 예술교육(케이스퍼센트: 56.1%), 예술소통(케이스퍼센트: 35.8%), 예술보존(케이스퍼센트: 28.5%), 국제교류(케이스퍼센트: 19.5%), 레지던시(케이스퍼센트: 2.4%) 순으로 나타났다.

보완되어야 할 범주 역시 상위 3범주 예술창작, 예술교육, 예술소통 순으로 나타났으며 국제교류, 예술보존, 레지던시 순으로 예술보존과 국제교류의 순위가 변경됨을 알 수 있다.

-예술촌의 공간

질문	공간	빈도	퍼센트	케이스 퍼센트
신설 되어야 할 공간?	작업실	19	8.7	16.4
	연습실	13	5.9	11.2
	박물관	8	3.7	6.9
	전시실	18	8.2	15.5
	향토관	13	5.9	11.2
	공연장	57	26.0	49.1
	레지던스 공간	23	10.5	19.8
	카페	29	13.2	25
	식당	12	5.5	10.3
	쉼터	27	12.3	23.3
합계		219	100	188.8

<표2-15> 사례 통합의 신설되어야 할 예술촌 공간에 대한 의견

질문	공간	빈도	퍼센트	케이스 퍼센트
개선되어야 할 공간?	작업실	25	11.9	20.8
	연습실	22	10.5	18.3
	박물관	6	2.9	5.0
	전시실	2	1.0	1.7
	향토관	2	1.0	1.7
	공연장	75	35.7	62.5
	레지던스 공간	25	11.9	20.8
	카페	7	3.3	5.8
	식당	23	11	19.2
	쉼터	23	11	19.2
합계		210	100	175

<표2-16> 사례 통합의 개선되어야 할 예술촌 공간에 대한 의견

예술가 및 단체 주도형의 다자와코예술촌, 민들레연극마을 사례의 통합적 분석으로 예술촌 공간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신설되어야 할 공간과 개선되어야 할 공간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신설되어야 할 공간은 공연장, 카페, 쉼터, 레지던스공간, 작업실, 전시실, 연습실, 향토관, 식당, 박물관 순으로

드러났다. 개선되어야 할 공간은 공연장, 레지던스공간, 작업실, 식당, 쉼터, 연습실, 카페, 박물관, 전시실, 향토관 순으로 공연장과 레지던스 공간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과 동시에 신설을 통해 공간의 영역 확대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카페와 쉼터 보완보다는 신설의 의견이 높게 반영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절대적 숫자가 미비함을 알 수 있다.

#### 나)가설 검정

- 5점 척도 문항에 대한 기술 통계량 및 아노바 분석 결과

가설 1.이용자별로 예술촌 공간 필요성에 대한 생각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가설 2.이용자별로 예술촌 공간 형성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가설 3.이용자 별로 지역주민은 지역문화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

가설 4.이용자별로 지역주민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

가설 5.이용자 별로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은 지역문화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

가설 6.이용자 별로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

가설 7. 이용자별로 행정기관은 지역문화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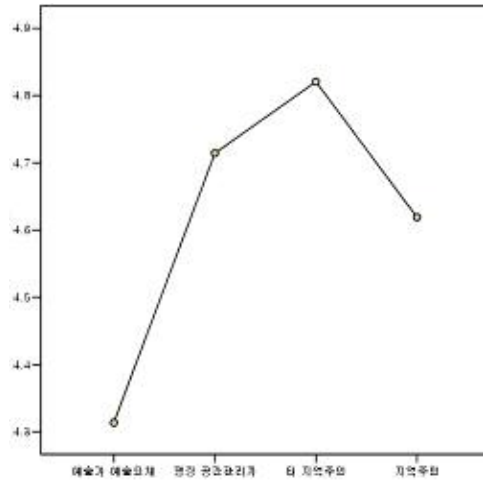
가설 8. 이용자별로 행정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 이상 8개의 가설들에 대한 아노바 검정 결과 표이다.

문항	소속(주체)	N	평균	표준편차	F/W	유의 확률
가설1.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술가 예술단체	51	4.31	0.648	5.624	0.004**
	행정 기관	7	4.71	0.488		
	타 지역주민	39	4.82	0.506		
	지역주민	21	4.62	0.498		
	합계	118	4.56	0.607		
가설2. 공간형성에 의견을 표현했다	예술가 예술단체	51	3.27	0.723	4.838	0.009**
	행정 기관	7	2.00	1.291		
	타 지역주민	38	2.53	1.555		
	지역주민	21	3.48	0.981		
	합계	117	2.99	1.207		
가설3. 지역주민은 지역문화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예술가 예술단체	52	4.21	0.800	0.228	0.877
	행정 기관	7	4.00	0.000		
	타 지역주민	39	4.26	0.751		
	지역주민	21	4.19	0.814		
	합계	119	4.21	0.758		
가설4. 지역주민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예술가 예술단체	52	4.19	0.817	0.646	0.587
	행정 기관	7	4.14	0.378		
	타 지역주민	38	4.05	0.804		
	지역주민	21	3.90	0.995		
	합계	118	4.09	0.827		
가설5. 예술가 예술단체들은 지역문화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	예술가 예술단체	52	4.40	0.603	0.593	0.621
	행정 기관	7	4.29	0.756		
	타 지역주민	39	4.36	0.668		
	지역주민	21	4.19	0.602		
	합계	119	4.34	0.630		
가설6. 예술가 예술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	예술가 예술단체	52	4.33	0.706	1.428	0.238
	행정 기관	7	4.14	0.690		
	타 지역주민	39	4.21	0.951		
	지역주민	21	3.86	1.153		
	합계	119	4.19	0.886		
가설7. 행정기관은 지역문화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	예술가 예술단체	52	3.62	0.844	5.346	0.002**
	행정 기관	7	4.71	0.488		
	타 지역주민	38	4.16	0.789		
	지역주민	21	3.81	1.030		
	합계	118	3.89	0.894		
가설8. 행정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	예술가 예술단체	52	3.62	0.889	2.340	0.077
	행정 기관	7	4.57	0.787		
	타 지역주민	38	3.74	0.891		
	지역주민	21	3.71	0.956		
	합계	118	3.73	0.912		

<표2-17>가설검정결과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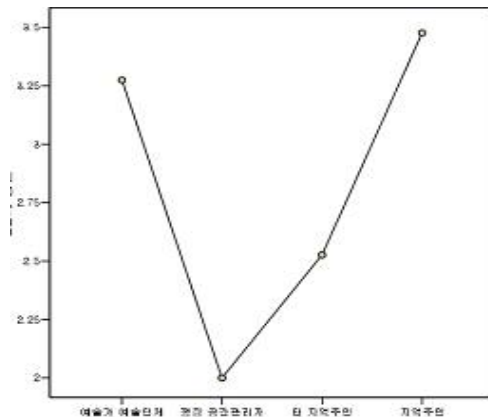
위의 결과표는 각각의 항목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 통계량 값 및 8개의 가설들에 대해 가설 검정을 위한 F/W 통계량 그리고 유의 확률을 나타낸 표이다. 각각의 가설검정에 대해서는 유의 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들 즉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 0.05 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는 유의 확률 값에 \*\* 표시를 표시해 두었다. 따라서 유의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가설 1, 가설 2, 가설 7 로 총 3개의 가설이 유의 수준 0.05 하에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이용자들 별로 위의 8개의 가설에 대해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유의 수준 0.05 하의 가설에 관해 아래의 평균 도표 그래프를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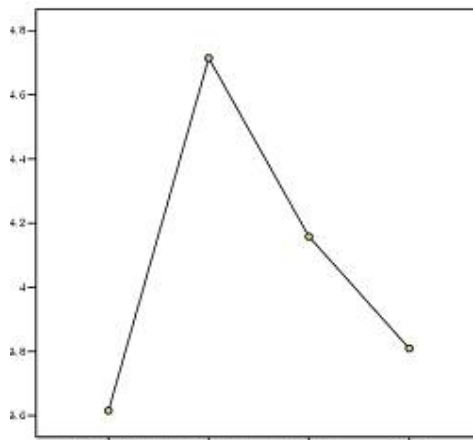
[그림2-7] 가설1 평균도표 그래프

가설 1에 대해서는 타 지역주민들이 이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제일 컸으며 예술가 예술단체들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2-8] 가설2 평균도표 그래프

가설 2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이 공간 형성에 의견을 표현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제일 컸으며 행정 및 단체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2-9] 가설7 평균도표 그래프

가설 7일 경우 행정단체의 경우 행정단체는 지역문화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의 정도가 컸으며 예술가 및 예술단체 일 경우 그렇지 않았다.

더불어 유의한 가설검증에 의해 평균도표를 살펴보면, 유의확률이 0.5가 넘는 가설은 총 5개로, 이는 소속(예술가 및 예술단체/ 행정기관/ 지역주민/ 타 지역주민)에 의한 집단 간의 차이가 거의 없음을 시사한다.

가설 3. 이용자별로 지역주민은 지역문화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의 차이가 거의 없다.

가설 4. 이용자별로 지역주민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의 차이가 거의 없다.

가설 5. 이용자별로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은 지역문화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

가설 6. 이용자별로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의 차이가 거의 없다.

가설 8. 이용자별로 행정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생각의 차이가 거의 없다. 로 정의되어 이 결과는 집단의 소속 및 지위에 의해서 보다, 해당 가설에 대한 '의견표현도' 분석이 옳다.

가설 3에 해당하는 본 질문 “지역주민은 지역문화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19명 중 ‘매우 그렇다’가 54명으로 (43.69%) ‘그렇다’가 46명으로 (38.65%)이며 ‘보통이다’가 20명으로(16.8%)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는 응답한 자가 없었다.

가설 4에 해당하는 본 질문 “지역주민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118명 중 ‘매우 그렇다’가 55명으로 (46.61%) ‘그렇다’가 42명으로 (35.59%)이며 ‘보통이다’가 21명으로(17.79%)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는 응답한 자가 없었다.

가설 5에 해당하는 본 질문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은 지역문화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전체 응답자의 119명 중 ‘매우 그렇다’가 44명으로 (36.97%) ‘그렇다’가 47명으로 (39.49%)이며 ‘보통이다’가 28명으로(23.52%)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는 응답한 자가 없었다.

가설 6에 해당하는 본 질문 “예술가 및 예술단체들은 지역경제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전체 응답자의 119명 중 ‘매우 그렇다’가 51명으로 (42.85%) ‘그렇다’가 48명으로 (40.33%)이며 ‘보통이다’가 19명으로(15.96%) ‘아니다’는 응답자가 없으며 ‘전혀 아니다’가 1명으로(0.84%) 나타났다.

가설 8에 해당하는 본 질문 “행정단체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전체 응답자의 118명 중 ‘매우 그렇다’가 48명으로 (40.67%) ‘그렇다’가 35명으로 (29.66%)이며 ‘보통이다’가 26명으로(21.84%) ‘아니다’ 7명으로(5.93) ‘전혀 아니다’가 2명으로(1.69%) 나타났다.

#### 다. 사례연구의 시사점

##### 1) 인터뷰에 따른 사례 비교분석

예술촌 공간의 규모와 운영구조에 차이를 보인다. 성격에 있어서, 다자와코예술촌(田澤湖

藝術村)은 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본격적인 “복합 문화 공간에서 호텔, 온천, 향토 음식점, 숲 공예관” 등을 함께 가지고 핵심 고사리 극장에서는 동북의 소재를 살린 오리지널 뮤지컬 제작 상연하고, 그 외에도 민족 무용 북 놀이 건강 체조 등 다양한 워크샵을 취지로 한다. 또한 운영구조에도 다자와코예술촌의 경우 주식 회사 와라비극단(わらび座) 속에서 극단 부문과 오락 부문 (관광 시설)으로 나누어 운영하게 된다. 다자와코 일이 늘고 매출이 오르게 되면서 운영구조에 분리가 된 것이다.

이에 반해 민들레연극마을은 극단의 연극이 주축이 되는 농촌체험마을로 연극적인 체험과 축제가 결합하는 형식으로 다자와코 예술촌의 규모에 비해 다소 협소함을 띤다.

극단이 주축, 운영은 사회적 기업 인력으로 동네 어머니들 2분 ‘저고리아주머니 두 분 (현영자/장순희)’을 고용하여 연극마을의 전체적인 일손을 도우신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두 예술촌 사례는 예술가주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창작공간과 거주공간에 개념에 있어 살펴보면 대부분 예술가들의 창작은 지역주민의 거주 공간의 문제와 부딪히게 되는데, 공간의 목적성에서 예술촌은 예술가에게 창작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맞게끔 분리된 공간으로서 특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다자와코예술촌과 민들레예술마을은 예술단체가 주축이 되어 발생되었기에 도심에서 떨어진 곳으로 부터의 창작공간 성격을 띄고 있다. 그러나 예술가가 예술촌에 거주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두 예술촌 모두 의무로 하고 있지는 않으며, 공간의 분리화에 대한 의미와 예술가가 주 창작지의 기반, 주 예술활동지의 기반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거주기반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예술촌에 상주하는 예술가 및 단체들이 지역주민들과 끊임없는 소통과 관계 및 지역 사회를 위한 기여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한다면 문제되지 않는 다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접촉의 면에서 예술촌에 예술가 및 예술단체가 상주를 하는 것이 지역주민과 소통이 이롭다는 점에서 유용할 수 는 있을 것이다.

사실상 예술의 창작공간과 거주공간이 분리가 될 수도 있고 일치할 수도 있는 것이 ‘소통’의 문제인 것이다.

두 예술촌 모두 예술가의 창작에 있어서는 예술촌의 기반을 두되, 예술가의 거주에 있어서는 크게 상관치 않는 면모를 보인다.

또한 예술촌의 범주화를 ①예술창작 ②예술소통 ③예술교육 ④예술보존 ⑤레지던시 ⑥국제교류로 보았을 때, 다자와코예술촌과 민들레연극마을 대표자는 그들의 예술촌을 ①예술창작 ②예술소통의 성격이 있다고 공통적으로 대답하였다. 또한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은 ①예술창작 ②예술소통 ⑥국제교류가 공통적으로 답변되었다. 따라서 예술의 창작과 소통이 기본적 예술촌의 성격임과 동시에 끊임없이 보완되어야 하는 예술촌의 범주임을 대표자들은 의식하고있으며, 예술촌이 추구하는 예술의 범주화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교류가 공통적으로 대답된 것을 보았을 때, 지역을 거점으로 창출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예술로 발전, 예술가단체와 시발점이 된 예술촌에서 다른 도시공간적 의미에서의 예술가 및 단체와의 교류 또한 중요시 여임을 발견한다.

## 2) 설문지에 따른 예술촌 사례분석

첫째로, ‘운영주체’에 관한의견으로 예술가 및 예술단체 주도의 예술촌 두 사례를 지역주민, 타 지역주민, 예술가 및 예술단체, 행정기관소속의의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예술가

및 예술단체와 지역주민은 운영주체가 예술가 집단이 주도하지만 민간주도가 함께 이루어져, 민간이 주도하는 역할이 커져야 함을 나타낸다. 행정기관의 경우, 예술가 주도에서 행정기관의 역할이 커져야 함을 보였으며, 타지역주민인 경우 예술가주도에서 더욱 예술가의 역할이 커져야 함을 나타냈다. 모두 현재의 예술촌의 주체자가 '예술가 및 예술가 주도'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추후에 역할에 대해 각 소속(지위)별 생각에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다.

둘째로, '예술범주영역'에 관한의견으로 예술창작과 다음으로 예술교육이 예술촌에서 이루어지는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보완되어야 할 범주 역시 예술창작과 예술교육 국제교류 예술소통 예술보존 레지던시 순으로 드러났다.

셋째로, '예술촌 공간'에 관한의견으로 신설되어야 할 공간과 개선되어야 할 공간 모두 공연장 레지던시 작업실 순으로 인터뷰에서 두 사례의 대표자들의 의견과 동일하였다.

넷째로, 지역의 '도시계획'과 예술촌 '공간형성'에 관한 의견으로 도시계획이 지역문화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소속 그룹은 행정기관이 두드러졌으며, 예술촌 공간형성에 있어 지역주민과 예술가 및 단체가 함께 의견을 표시하고 공간에 관해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자는 논문의 도입 부분 <공간에 따른 예술촌 범주>를 통해 새로운 미래의 공간은 현실과 가상, 일과 휴식, 여가가 수렴되어 함께하는 공간으로 'The third place'로 공간을 범주화 하였다. 이때 제1의 공간은 사적인공간, 휴식과 여가를 위한 가정, 휴양지 제2의 공간은 공적인 공간, 생업을 위한 작업장, 사무실 제3의공간은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결합으로 휴식과 일을 동시에 수행하게 될 것이다. 외부와 소통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는 공간으로의 계획적 공간설립이 궁극적으로 행정기관이 추구하는 도시계획적 예술촌설립 일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예술촌은 지리적 고려와 함께 공간의 성격을 고려해야함을 발견한다.

### 3) 커뮤니티 비즈니스적 관점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핵심은 '지역사회의 지역사회를 위한 지역사회에 의한'이라 할 수 있다. 다자와코예술촌과 민들레연극마을은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공간으로서 이를 계속 고민하며,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계속해 고민하는 것이 차별 화라 할 수 있다.

먼저 다자와코예술촌 내 고사리 극장의 비전에서 엿볼 수 있는 지역사회 공헌은 사례연구의 사업계획에서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서에도 드러난다. 예로 인재 육성 (인재 발굴, 인재 육성) 사업 및 공연 또는 워크숍 활동은 아티스트, 직원, 무대 예술을 사랑하는 감상자의 육성하며 또한 장르를 불문 다양한 예술 활동에 지원하는 '지역에 열린 극장'을 목표로 한다. 또한 마을 만들기 (새로운 공공 의식의 창출) 시민 참여에 의한 문화, 복지, 관광, 교육 활동의 거점이 지역의 문화적, 경제적 발전에도 기여하는 "지역에 뿌리내린 극장"을 목표가 의지를 표방 한다. 무엇보다 마을을 지역 고용의 장소로 보는 것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핵심이다. 다자와코예술촌은 지역 안에서 또한 고객도 함께 일하는 파트너이자 마을안에서 고용을 창출하려한다. 지역에 근간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력을 최대한 발휘하려 하는 것이다. 예술마을 안에 복합 문화 공간에서 호텔, 온천, 향토 음식점, 숲 공예관의 인력은 마을 안에서 인력 창출을 근간으로 한다.

또한 *わらび座* 예술적인 임무는 인간의 근원에 강요, "살아있는 것, 인간은

버린 것이 아니다." わらび座 공연에서는 그 인간의 존재를 의심하고 싶어지는 사건이 이어 그것을 반영한다. 생명을 조장하는 문화가 범람하고 있지만, 우리는 생명을 사랑합니다. 영어 Life라는 말에는, 생활, 인생, 삶, 건강 등 인간과 관련된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이 포함하도록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아름다움을 그려, 사람들의 마음의 양식 삶의 힘이 되는 예술 활동을 진행할 수 わらび座의 이념과 목적이다. 그리고 이 이념 아래 무대와 워크샵, 수학여행 유치 등으로 지역이나 사회에 공헌할 수 わらび座의 존재 가치로 본다.<sup>22)</sup>

다음으로 민들레 연극마을 내 지역사회 공헌은 축제를 통한 연극 및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사례연구에서도 드러나듯이 예로마을 도서관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에 문을 연다. 누구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마을 주민들이 직접 문화향유자, 예술자가 되도록 주민들이 마을의 이야기를 퍼레이드 형식의 연극으로 발전시켜 올리는 작업을 축제(가을걷이 축제, 품앗이축제 등)와 연계하여 가지는 것이 가장 특징적이다. 또한 2012년도부터 계획되는 '신화놀이터'와 는 현재 진행되는 사회적기업인력으로 동네 어머니들 2분 '저고리아주머니두분 (현영자/장순희)'을 고용의 다소 소극정 형태에서 점진적 확대를 하리라 생각한다. 축제 때 하는데 마을분들이 자신의 특산품을 들고 와 도시민들이 농산품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의의가 있다. 이때 경제이익은 마을사람들이 전부 가지게 된다.

---

22) 와라비극장 지배인- Ozawa Takeshi 지배인 서면인터뷰 : 09-13 e-mail 회신

### Ⅲ. 결론

예술가 및 예술단체가 주체가 된 지역문화로서의 예술촌 두 사례를 통해, 무엇보다 예술의 정의인 ‘예술가의 예술 창작과 시민들의 예술 향유’에 있어서 가치를 발현한다고 볼 수 있다. 예술가가 주체가 되어, 창작의 의미를 실현하며 시민들이 공간과 콘텐츠를 참여함을 통해 공간과 시간을 공유한다. 시민들은 예술적으로, 예술향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마을사람들이 직접 창조해가는 이야기를 지역에 연고된 마을을 이야기거리로 시작하여 풀어나간다. 이때 실질적으로 예술가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경제적, 사회문화적가치)을 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가며 예술가들이 그들이 예술의 장을 펼칠 때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예술촌은 존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어떤 운영주체가 발단이 되어 공간이 형성이 되었는지 예술촌의 예술창조와 영업활동은 사례의 양바퀴와 같은 중요성을 보인다. 이때 발생하는 것은 ‘복합적 문화사업체’의 오늘날 모습이다. 이는 ‘지역자원’에 기반을 두고 이를 활용해가는 것에서 나타난다. 이때 특별히 지역에 거점을 ‘커뮤니티 비즈니스’ 개념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주체자의 인터뷰와 다양한 주체의견인 설문지를 통해서도 나타나듯이, “행정 단체의 자금 원조하에 민간 주도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는 두 사례를 통해 무엇보다도 지역주민과 예술가 및 예술단체의 노력과 동시에 공동적으로 재단(관)의 행정, 경제적지원에 관한 부분이 예술촌(예술공간)에 지원되어야 함을 발견했다. 이점에서 주민과 예술가주도의 예술촌이 지속적으로 존속되기 위해서는 행정단체 및 재단(관)에 지원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예술을 산업으로 경영을 성립시켜 나가는 것은 쉽지 않으며 항상 자금 부족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국가와 재단이 모든 운영까지 맡게 된다면 자체적인 독창적인 활동과 예술의 평가의 어려움을 표했다. 따라서 스폰서는 필요하지만, 스폰서에 의존하는 수 없음이 그들의 의견이었다. 공간과 예술촌의 구축단계에서 미비한 것이 사실이기에 지원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이에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예술촌의 활성화는 지역의 주민과 더불어 지역의 예술의 창작과 향유에 뜻을 가지고 있는 창작자와 함께, 지역을 창조적으로 받아들이는 관과 함께 더불어 발전하리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김창규. 『지역사회를 비즈니스하다』, 서울:아르케, 2010

이홍재. 『문화예술과 도시경제』, 서울:문자향, 2002

이케가미 준 外 10인 (저) 황현탁 (역) 『문화경제학』, 서울:나남출판, 1999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상상하다 1』, 서울:아지북스, 2006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 연구소. 『문화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극대화 방안에 관한연구: 주요 문화공간의 운영실태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문화예술 진흥원, 1992

함유근, 김영수. 『커뮤니티 비즈니스』, 서울:삼성경제연구소, 2010

宮協純, 『ソーシャルキャピタルと地域経営』, ソーシャルキャピタル研究会報告書、北海道の大学公共政策大学院,, 2006

日本総合研究所,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の可能性と前方の本についての調査研究報告書』, 2004

三内の新孝, 『コミュニティビジネス、中央大学出版部』, 2001

### 학위 논문

곽수정. 「유휴(遊休)공간의 문화공간화를 위한 콘텐츠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대학원 컨텐츠디자인전공 박사학위논문, 2007.

김병준. 「도시재생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도시설계전공 박사학위논문, 2010.

남희주. 「폐공간 활용 예술공간 연구: 창작-향유-유통-재생산의 선순환 구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공연예술경영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9.

박소현. 「마을만들기 사업 구성요소로서의 새로운 예술공동체 모델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박물관 미술경영전공 석사학위논문, 2008.

박수이. 「커뮤니티 의식 활성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방법비교 연구 : 한평공원만들기 사업과 공공미술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2009.

박꽃비.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폐교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연구」·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예술경영전공 석사학위논문, 2008.

배수철. 「미술문화공간을 통한 도시재생의 방안연구 : 장흥아트파크 조성과정 및 운영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예술기획전공 석사학위논문, 2008.

송영호. 「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학교 경영대학원 예술경영전공 석사학위논문, 2006.

### 정기간행물(학회지, Journal)

김운호,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 사회적기업과의 구분을 목적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1권, 제1호, 2010년, pp.275-299

김진범, 정윤희, 이승욱, 진영환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방안연구』, 국토연구원, 2009, pp.14~64

김재준, 공용택, 김재범, 이수희, 안지연 외 5명 「국내 외 국제교류 기관 및 재단 현황분석」 『국제교류사업 강화방안연구』, 2010, pp.44~114

김병국, 「지방자치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의 의미」, 『스페셜 리포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11, pp.20~23

박신의 외 5명 「서천군 문화예술인촌 조성 기본계획」 『문화예술인촌 조성을 통한 지역의 문화.경제적 파급효과』,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2008, pp.109~154

유상진 「시민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공동체 형성과 도시발전」 『서울다움제5호』, 서울문화포럼, 2010, pp.365~371

호소노부타카, 「지역사회를 바꾸다 새로운 비즈니스 스타일 커뮤니티 비즈니스」 『2010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경기복지재단, 2010

### 웹사이트

<http://min365.com/> (극단 민들레)

<http://www.seri.org/> (삼성경제 연구소)

<http://www.wikipedia.org/> (위키피디아)

<http://www.warabi.jp/> (와라비)

<http://www.mext.go.jp/> (일본 문무과학성)

<http://www.yahoo.co.jp/> (야후 재팬)

<http://www.geijutsumura.net/company.html>

<http://www.aiav.jp/> (아키요시다이 국제예술촌)

<http://www.akitafan.com/> (아키타현 관광종합사이트)

[www.cb-s.net](http://www.cb-s.net) (일본 지역사회 사업지원센터)